Entertainment p/03

잠실벌 태지매니아 총집결

metro®

메트로 2014년 10월 17일 금요일 제3075호 www.metroseoul.co.kr

Game p/12

19일 한·중 롤드컵 결승전

광주U대회 점검나선 FISU 집행위원들과 조직위원장 광주 U대회 개막 8개월여를 앞둔 16일 오후 '세계대학스포츠연맹(FISU)' 집행위원들이 광주-KIA 챔피언스필드를 방문, 김황식 대회조직위원장, 김윤석 사무총장과 함께 대회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배달 앱' 서비스 폭풍 성장 예고

전국 50여 사에 1조원 시장, 수수료는 11~20%선
온라인 유통사 눈독… '배달의 민족' 日진출 선언

배달 애플리케이션 서비스가 유통시장에 새로운 강자로 주목 받고 있다.

전국적으로 현재 음식 배달 서비스를 하고 있는 앱은 50여 개가 넘는다. 2010년 주요 업체들이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2011년과 2012년을 기점으로 그 수가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새로운 유통 방식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국내 배달 시장이 10조원으로 추산된다. 배달 애플리케이션(이하 배달 앱) 시장 역시 연간 1조원 대 규모로 성장하면서 신성장동력을 찾는 온라인 기반의 유통 업체들이 이 서비스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반면에 기존 서비스 업체들은 홍보를 강화하거나 해외 진출을 꾀하는 등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 지고 있다.

먼저 온라인 쇼핑 업계의 음식 배달 앱 진출이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베이코리아는 음식 배달 카테고리를 신설하기로 했다. 음식 배달 앱 'M'과 제휴해 옥션·G마켓·G9 등 운영 중인 오픈마켓에 이 브랜드의 가맹점을 카테고리에 입점시키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이에 이베이코리아 측은 "다른 브랜드처럼 입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을 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말을 아꼈다.

소셜커머스 티몬은 지난 5월부터 음식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현재 시스템 개선을 위해 서비스를 잠시 중단한 상황이다.

티몬은 기존 서울 일부권역에서 시범 운영하던 것을 서울 전역과 인천 등 수도권 일부 지역으로 확대해 3000여개 업체의 배달 딜을 오픈했다. 오픈 초기인데다, 대대적으로 투자한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매출 규모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티몬은 실시간 주문·예약 시스템 연동 등 일부 시스템을 개선해 배달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진입장벽과 수수료율이 높아 신규 진출 업체에는 부담이 될 전망이다.

비싼 수수료도 문제다. 수수료를 많게는 20%까지 요식업체에 요구하기 때문에 그 부담이 결국 음식 가격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불만이 일부 소비자와 요식업체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다. 실제 업체별 수수료율은 배달의 민족 13.8%, 요기요 17~20%, 배달통 8.8~11% 다.

업계 관계자는 "전화 주문과 배달 앱을 통한 가격이 상이한 경우가 있어 일부 요식 업체에서는 소비자에게 전화로 주문하는 것이 더 싸다고 말하기도 한다"고 귀띔했다.

이런 가운데 기존 배달 앱 서비스의 90%를 점유하고 있는 '배달의 민족'을 비롯해 '요기요' '배달통' 등 기존 3개 업체의 경쟁은 전쟁을 방불케 한다.

배달통은 지난 15일 사업 진출 4년만에 처음으로 TV CF를 제작했다.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가 기발한 아이디어의 TV 광고로 주목을 받으며 인기를 끌게 되자 신규 광고를 통해 전쟁을 선언한 것이다.

요기요는 지난 2일 그동안 배달 되지 않던 강남·서초 지역의 유명 맛집과 고급 레스토랑 음식을 집에서 편하게 주문할 수 있도록 온라인맛집 배달전문서비스 업체인 '푸드플라이'와 제휴해 '강남맛집배달' 서비스를 시작했다.

해외로 시각을 늘린 배달 앱 서비스 업체도 있다. 업계 최초로 월간 순 방문자수(UV) 250만 명을 돌파한 배달의 민족은 지난 10일, 네이버의 자회사이자 모바일 메신저 '라인'을 운영하는 라인주식회사와 손잡고 일본 내 배달 사업 진출을 공식 선포했다. 지난 5월 양 사가 공동 출자해 설립한 '라인브로스 주식회사'를 기반으로 조만간 일본 유명 식당의 메뉴를 스마트폰으로 배달시킬 수 있는 '라인와우(LINE WOW)'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일본의 수도인 도쿄 지역을 1차 대상지로 정하고 현지 배달기사를 채용하고 배달기사의 서비스와 복장까지 라인와우가 직접 관리키로 했다.

신규 유통채널로 자리잡은 배달 앱 서비스가 어느 정도, 어디까지 발전할지 궁금하다.

/정영일·김수정기자 prms@metroseoul.co.kr

청소년 시력 저하 주범은 '스마트폰'

수원지역 청소년의 45%가 스마트폰 사용 때문에 시력이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시안경사회가 지난 9월 한 달 동안 수원지역 초·중·고교생 61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5%가 시력 저하의 주된 요인으로 스마트폰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동안 시력저하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던 컴퓨터(34%)보다 11%포인트나 높은 것이다.

특히 ▲초등학생 41% ▲중학생 44% ▲고등학생 46% 등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시력저하의 원인을 스마트폰이라고 지목했다.

학교에서 스마트폰과 관련한 교육으로 '사용시간 교육'이 35%로 가장 많은 반면 '시력관리 교육'은 7%에 불과했다.

/윤다혜기자 ydh@

이 주의 개봉작

컬러풀 웨딩스
장르: 코미디
감독: 필립 드 쇼브롱
출연: 프레데릭 벨, 엘로디 퐁탕

독실한 가톨릭, 뼛속부터 순수 혈통인 클로드 부부. 하지만 딸들이 아랍인, 유태인, 중국인과 결혼한 뒤 매일 같이 문화 충격을 받는다. 유일한 희망은 바로 막내딸이 평범한 프랑스인 사위를 데려오는 것. 그러나 막내딸의 사회 후보로 아프리카인이 오게 된다.

할리데이
장르: 뮤지컬
감독: 맥스 기와, 다니아 파스퀴니
출연: 한나 아터튼, 애나벨 스콜리, 그렉 와이즈

지중해 최고의 휴양지 이탈리아 풀리아로 휴가를 떠난 테일러는 언니가 3년 전 자신과 사랑에 빠졌던 라프와 깜짝 결혼을 발표해 충격에 빠진다. 여전히 라프를 사랑하고 있는 테일러는 언니를 위해 자신과의 관계를 비밀로 해줄 것을 라프에게 당부한다.

사막에서 연어낚시
장르: 드라마
감독: 라세 할스트롬
출연: 이완 맥그리거, 에밀리 블런트

영국 해양 수산부 어류학자 알프레드 존스 박사는 투자 컨설턴트 해리엇의 요청으로 중동 오일왕자가 계획 중인 '사막에서 연어낚시' 프로젝트를 접한다. 정치적으로 프로젝트를 이용하려는 총리실 홍보 담당자의 압박으로 불가능한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다.

꼬마잠수함 올리
장르: 애니메이션
감독: 헤 질리
출연: 김경의, 최윤정, 김자연

꼬마잠수함 올리와 베스는 무지개 해적 선장의 증손자라고 떠들고 다니는 해달 밥시를 만나 보물을 찾으러 모험을 떠난다. 그러나 무시무시한 바다악당 샤크스킨 일당이 이 소문을 듣고 세 친구의 뒤를 쫓기 시작한다.

청춘들의 매혹적인 성장담

비트 세대 작가들의 20대를 그린 영화

이 주의 선택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킬 유어 달링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0년대. 앨런 긴즈버그(다니엘 래드클리프)는 정신병에 시달리는 어머니와 그런 어머니를 무심하게 대하는 아버지의 곁을 떠나 컬럼비아 대학에 입학한다. 그곳에서 그는 잭 케루악과 윌리엄 버로우즈, 그리고 루시엔 카(데인 드한)를 만나 '뉴 비전'이라는 새로운 문학 운동을 시작한다. 그러나 이 치기어린 청춘들의 삶은 뜻밖의 사건과 함께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킬 유어 달링'은 1950년대 미국 문학의 흐름을 뒤흔들었던 비트 세대 작가들의 청춘 시절을 다룬 영화다. 비트 세대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산업화를 통해 획일화돼가는 미국 사회에 반기를 들고 자유로운 삶을 향한 도피와 방황을 중요한 가치로 내세웠던 이들이다. 앨런 긴즈버그, 잭 케루악, 윌리엄 버로우즈는 비트 세대를 대표하는 시인이자 소설가들이다. 영화는 이들 작가들이 20대 시절 치명적인 매력을 지닌 뮤즈 루시엔 카를 만나면서 겪게 되는 이야기를 그린다.

청춘은 자유와 반항의 시기다. 서정시가 지닌 전통과 양식에 대해 거부감을 드러내는 앨런의 모습은 그런 청춘의 치기어림의 표상이다. 앨런이 도서관에서 금서로 지정된 헨리 밀러의 외설적인 글귀를 소리내 읽는 루시엔에게 끌리는 것은 당연하다. 루시엔을 통해 앨런은 잭 케루악, 윌리엄 버로우즈와 친분을 만들며 자유와 반항의 쾌락을 함께 나눈다. 그리고 루시엔의 동성 연인인 데이빗(마이클 C. 홀)을 보며 질투와 시기에 가까운 감정을 서서히 느끼게 된다.

존 크로키다스 감독은 첫 장편 영화인 '킬 유어 달링'에서 감각적이면서도 세련된 연출을 선보인다. 시선을 사로잡는 오프닝, 그리고 영화 내내 흘러나오는 1940년대 재즈 음악은 눈과 귀를 즐겁게 만든다. '크로니클' '어메이징 스파이더맨2' 등으로 주목 받은 할리우드의 신성 데인 드한은 퇴폐적이면서도 매혹적인 연기로 강렬한 존재감을 남긴다. '해리 포터' 시리즈의 이미지를 벗어던진 다니엘 래드클리프의 과감한 연기도 인상적이다.

영화의 제목은 "사적인 감정은 죽여라"라는 뜻이다. 창의적인 글을 쓰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호감이나 유치한 직감은 지워야 한다는 의미다. 또한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렸을 때 청춘은 비로소 성장한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 청춘들의 자유로운 반항으로 강한 에너지가 인상적인 전반부에 비해 파국으로 치닫는 앨런과 루시엔, 데이빗의 이야기를 그리는 후반부는 지나친 생략과 압축으로 다소 에너지가 약하게 느껴진다. 그럼에도 '킬 유어 달링'이 청춘들의 매혹적인 성장담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청소년 관람불가.

부산국제영화제 화제작 극장에서 만난다

BIFF 화제작 극장에서 만나요

아시아·미국·영국 감독 신작 줄줄이 개봉

10월 셋째 주 극장가의 화제작은 지난 11일 폐막한 제19회 부산국제영화제 화제작들이다. 중국·홍콩·일본 등 아시아 지역과 영국의 대표 감독들의 신작들이 개봉해 영화 팬들과 만난다.

김태용 감독과의 결혼으로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탕웨이가 주연한 영화 '황금시대'는 16일 개봉한다. 올해 영화제에서 '갈라 프레젠테이션' 부문에 초청됐다. 1930년대 중국의 천재 작가로 손꼽히는 샤오홍의 일대기를 그린 작품이다. 홍콩 뉴웨이브의 거장 허안화 감독이 연출을 맡았다.

'황금시대'와 함께 '갈라 프레젠테이션' 부문에 초청됐던 '5일의 마중'은 지난 8일 개봉해 전국 극장가에서 상영 중이다. 중국 5세대 감독의 선구자인 장예모 감독이 중국을 대표하는 배우 공리와 7년 만에 재회한 작품이다. 매월 5일 기차역에서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의 이야기를 그렸다.

칸영화제를 여러 차례 찾았던 일본 가와세 나오미 감독의 영화 '소년, 소녀 그리고 바다'도 지난 8일 개봉했다. 자연 그대로의 생명력이 살아 숨 쉬는 신비로운 섬 아마미를 배경으로 두 소년 소녀가 삶과 죽음의 과정을 겪어내며 인생의 의미를 깨달아가는 과정을 그렸다. 올해 칸영화제 경쟁부문에 진출했으며 부산국제영화제 '아시아영화의 창' 부문으로 국내 관객과 처음 만났다.

피어스 브로스넌 주연의 액션 스릴러 '노벰버 맨'도 16일 개봉해 관객들과 만난다. 코드네임 '노벰버 맨'으로 통하는 전직 CIA 요원 피터가 은퇴 후 조용히 살던 중 새로운 음모에 휘말리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단테스 피크'의 로저 도널드슨 감독이 17년 만에 피어스 브로스넌과 재회한 작품으로 올해 영화제 '월드 시네마' 부문에 초청됐다.

영국을 대표하는 켄 로치 감독의 신작 '지미스 홀'은 지난 8일 개봉했다. 영국으로 독립한 뒤 혼란을 겪고 있던 1932년 아일랜드를 무대로 사람들의 유일한 희망이자 행복의 공간인 마을회관을 지키려다 공산주의자로 몰려 추방당한 실존 인물 지미의 이야기를 그렸다. 켄 로치 감독이 마지막 작품으로 선언해 화제가 됐으며 올해 영화제에서는 '월드 시네마' 부문에서 상영됐다.

/장병호기자

황금시대

소년, 소녀 그리고 바다

지미스 홀

노벰버 맨

5일의 마중

주말 잠실벌 5만 태지매니아 총집결

Top Stage

올림픽주경기장서 5년 만의 컴백 공연 '크리스말로윈' 열어

단독 콘서트 '크리스말로윈' 무대 콘셉트 사진.

탈 신비주의를 선언한 서태지가 초대형 콘서트로 변화의 진면모를 모두 공개한다.

서태지는 5년 만의 새 앨범인 9집 '콰이어트 나이트' 발매(20일)에 앞서 18일 잠실 올림픽주경기장에서 단독 콘서트 '크리스말로윈(Christmalowin)'을 개최한다. '크리스말로윈'은 크리스마스와 할로윈의 합성어로 다양한 세대와 통하겠다는 뜻이 담겼다.

음반 발매에 앞서 KBS2 '해피투게더'에 출연해 이례적으로 개인사를 털어놓는가 하면 선공개곡인 '소격동'에서 한층 감성적인 코드를 선보이는 등 '유부남·아이 아빠 가수'로서 변화가 감지된다. 공연장에는 미취학 아동(36개월 이상)을 위한 놀이방도 운영하는 등 대중과의 소통에 중점을 둔다.

자신만의 고유한 음악 색깔을 전면에 내세우며 두꺼운 마니아층을 아우르던 서태지는 이번 공연에서 대중이 공감할 수 있는 무대를 보다 확대했다.

'소격동'의 음원과 뮤직비디오에서 함께 했던 국민 여동생 아이유가 콘서트에도 등장한다. 서태지와 아이유가 함께하는 첫 무대이다. 서태지와 아이유가 각자의 버전으로 음원을 발표했지만 이번 공연에서는 두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협연을 할 지 관심이 쏠린다. 아이유 외에 힙합계의 대세로 떠오른 스윙스와 바스코가 객원 래퍼로 참여한다.

서태지는 이번 공연에서 9집 수록곡 외에도 데뷔 22주년을 맞아 '너에게' '하여가' '컴백홈' '교실이데아' 등 대표곡들을 선사할 계획이다.

'크리스말로윈'은 역대 서태지의 공연이 그랬듯 막대한 물량 투입으로 최상의 음악을 전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가로 길이 80m의 거대한 무대의 전면에는 초대형 할로윈 호박 구조물이 설치된다. 무대 곳곳에 배치된 호박 인형들은 할로윈 분위기를 물씬 느끼게 해주며, 크리스마스를 상징하는 눈꽃과 산타마을도 무대에 꾸며진다.

무대 좌우에 설치된 초대형 LED 역시 일반 상식에서 벗어나 비대칭으로 설치해 유머러스하고 괴기스러운 공연의 콘셉트를 표현한다. 초대형 호박 모형의 입 안에 설치되는 LED는 상하로 제어되는 시스템으로 눈길을 끌 예정이다.

서태지의 대형 공연에 빠지지 않는 돌출 무대 역시 전형적인 T자 형이 아닌 비대칭 유선형으로 설치된다. 좌우 양쪽 객석에 보다 깊숙이 파고들 수 있도록 설치돼 더 많은 관객들과 만날 수 있도록 했다.

공연 사운드에도 남다른 공을 들였다. 세계적인 사운드 디자이너 폴 바우만이 참여한 이번 공연의 음향 설비는 올림픽주경기장을 가득 채우고 남을 총 130대의 메인 스피커가 투입된다. 이 외에 36대의 그라운드 서브 우퍼가 관객의 귀를 사로잡는다.

폴 바우만은 "서태지씨는 장르적 스펙트럼이 넓은 뮤지션이기 때문에 완벽한 공연장 음향을 만드는 것은 큰 도전이었다"며 "모든 곡이 창조적인 사운드를 만들어 내고 조화를 이뤄내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작업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태지는 20일 정규 9집을 온·오프라인에 출시한다. 이에 앞서 16일 공개한 타이틀곡 '크리스말로윈'은 국내 10개 음원차트 정상을 싹쓸이 했다. '크리스말로윈'은 서태지가 그려낸 동화 같은 이야기로, 크리스마스 산타와 할로윈 괴물이라는 선과 악의 정형화된 이미지와 역할을 뒤집어 세상에 숨겨진 진실을 이야기하는 곡이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400회 명성 '무한도전'…첫회 야심 '모던파머'

주말엔 본·방·사·수

육아예능 원조 god 총출동 '오 마이 베이비'도 관심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나들이 기회를 뒤로하고 방콕을 선택한 당신을 위한 강추 프로그램. TV 앞에서 본방을 사수하는 동안 만이라도 그 어떤 외로움과 지루함을 날려 버릴 수 있는 이번 주말 화제의 프로그램을 미리 만나본다.

/전효진기자 jeonhj89@metroseoul.co.kr

◆ '오 마이 베이비' god 총출동

그룹 god가 SBS '오 마이 베이비'에 총출동한다. 이날 방송에서 김태우의 두 딸 소율·지율 자매는 god 대전 콘서트 현장을 방문한다. 박준형이 소율이를 가장 격하게 반겼지만 이 모습에 소율은 놀라며 대성통곡한다. 반면 소율의 마음을 사로잡은 멤버는 데니안과 손호영이었다. 이들은 삼행시로 소율에게 사랑을 고백했다. 특히 손호영은 소율의 장난과 응석을 모두 받아주는 자상한 면모를 보여 'god의 육아일기' 왕 엄마의 귀환을 알렸다. 소율·지율 자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눈썹 웨이브' 등 15년 전 개인기까지 보여준 god 삼촌들과 아빠 김태우, 율자매는 누구를 선택할까? 오는 18일 오후 5시에 확인할 수 있다.

◆ '무한도전' 400회 특집

토요일을 '무도데이'라고 부를 만큼 한국 예능에서 하나의 문화를 만들어 낸 '무한도전'이 400회 특집을 마련한다. 2005년 4월 23일 '토요일'의 코너 '무모한 도전'에서 출발한 '무한도전'은 '무리한 도전'을 거쳐 2006년 지금의 이름으로 독립했다. 멤버들조차 "시작할 때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다"며 400회를 맞이한 소감을 전했다. '무한도전' 400회 특집에서 멤버들은 가장 어색한 사람 두 명이 짝 지어 1박2일 여행을 떠난다. 9년을 함께 하며 서로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 멤버들은 퀴즈 앞에서 무너졌다는 후문이다. 노홍철·하하, 유재석·정형돈, 박명수·정준하가 커플이 돼 이태원 산책, 주꾸미 낚시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특히 유재석과 정형돈은 우유부단한 성격 탓에 갈 곳 몰라 헤매다 팬에게 둘러싸여 쉽지 않은 여행을 할 예정이다.

◆ 유기농 드라마 '모던파머' 첫방

SBS 새 주말 미니시리즈 '모던파머'는 농촌으로 간 록밴드 네 멤버(이홍기·이시언·곽동연·박민우)의 유기농처럼 순수한 꿈과 사랑, 우정을 이야기한다. 1회에는 홍대 인기 밴드 엑소(엑설런트 소울스)의 보컬에서 농부가 되기로 한 이민기(이홍기)의 사연이 그려진다. 잘 나가던 가수였던 이민기는 엄청난 사건 이후 시골 장터를 돌아다니며 노래 해야 할 만큼 추락한다. 특히 청양 고추 축제에서 여고생들이 던진 슬리퍼 세례를 받는 굴욕을 겪기도 한다. '엑소'라는 밴드 이름 때문이다. '엑설런트 소울스'의 줄인 말이지만 그룹 엑소가 등장하는 바람에 짝퉁 오명을 얻고 소녀 팬의 비난을 받는다. 좌절보다는 재기를 꿈꾸며 귀농한 주인공들의 이야기가 시청자에게 활력을 줄 지 기대된다. 오는 18일 첫 방송.

알고보는 TV

'가족끼리…' 주말안방 인기비결은

자극 없는 '착한 드라마'… 커플별 시청률 공약 눈길

KBS2 주말극 '가족끼리 왜 이래' 김상경이 시청률 공약으로 파트너 김현주의 결혼을 내걸었다.

16일 여의도에서 열린 드라마 기자간담회에서 김상경은 "시청률 42%를 달성하면 김현주를 결혼 시키겠다. 어떻게 해서든 노력할거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우여곡절 끝에 결혼에 골인한 윤박·손담비 커플은 "40~45%의 시청률을 기대한다"며 "명동 한복판에서 프리허그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애정전선에 먹구름이 낀 박형식·남지현·서강준은 "5% 더 받고 50%의 기적을 예상한다"며 강남역을 프리허그 장소로 선택했다.

'가족끼리…'는 남녀, 가족의 사랑과 갈등을 현실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세 커플은 총 50부작 중 절반을 향해 가는 시점에서 커플 별 관전 포인트를 이야기했다.

김현주는 "문태주 상무와 티격태격하면서 사랑을 할 것"이라며 "세 커플 중 나이가 가장 많으니까 노련한 호흡을 보여줄 것 같다. 남성 파트너를 교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도 나는 김상경을 선택할 거다. 구관이 명관이다"고 했다. 김상경과 김현주는 작품에서 문태주 상무와 차강심 비서실장을 연기한다. 썸만 타던 두 사람은 지난 방송에서 사랑의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KBS2 주말극 '가족끼리 왜 이래' 유동근·김현주·김상경·손담비·윤박·박형식·남지현(왼쪽부터)/KBS 제공

윤박은 "우리 커플은 불완전한 관계에서 맺어졌다"며 "결혼은 집안과 집안이 연결된 거다. 그 안에 벌어지는 갈등을 중심으로 봐 달라"고 말했고, 차달봉(박형식)·윤은호(서강준)의 장난에 상처 입은 남지현은 "윤은호가 적극적으로 대시하면서 나와 차달봉을 흔들어 놓는다. 둘 사이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지가 포인트"라고 기대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홀로 차씨 삼 남매를 키운 차순봉 역의 유동근은 이날 "내게도 여자가 등장한다"고 깜짝 발언을 해 현장을 놀라게 했다.

'가족끼리…'는 지난 12일 자체 최고 시청률 29.5% (닐슨코리아·전국 기준)를 경신했다. 막장 없는 착한 드라마를 표방하며 주말 안방 시청자에게 훈훈함을 주고 있다. 이에 김현주는 "화제가 된다고 해서 성공한 것도 아니고 성공했다고 좋은 작품인 것도 아니다"며 "보는 사람, 촬영하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 지가 중요하다. 시청자가 '좋은 드라마를 보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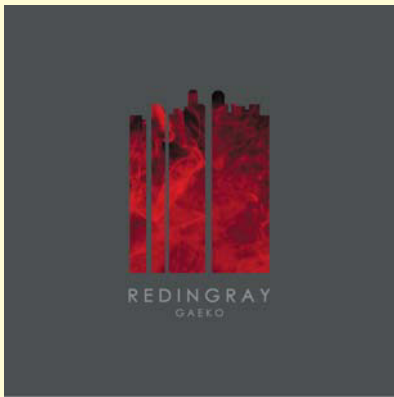
/전효진기자

팬을 위한 종합선물세트 같은 앨범

주말엔 이 노래

다이나믹 듀오 개코의 첫 번째 솔로 앨범 '레딘 그레이'

무려 17곡 수록… CD 두 장에 나눠 담아
동료 최자 없이 혼자만의 음악 색깔 표현

올 가을은 '컴백 대란'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여러 장르의 쟁쟁한 가수들이 앞다퉈 신보를 발표했다. 그 가운데 '힙합계의 큰 형님' 개코(33·김윤성)가 첫 번째 솔로 앨범 '레딘그레이(REDINGRAY)'를 내놨다. 수 많은 래퍼들이 뜨고 지는 치열한 힙합신에서 그는 10년 이상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구축하며 마니아층과 대중을 아우르는 래퍼로 자리했다. 그의 첫 번째 앨범은 수록곡만 무려 17곡에 이르고 CD는 두 장으로 나눠져 있다. '레딘그레이'는 그의 음악 세계를 처음으로 정리한 음반이자 힙합에 목말라하던 음악 팬들에겐 종합선물세트같은 음반이다. 이번 주말의 추천 음반인 '레딘그레이'를 개코의 입을 통해 먼저 들어봤다.

◆다이나믹 듀오의 개코와 솔로 개코는 무슨 차이가 있나.

다이나믹 듀오(이하 다듀)의 모든 음악은 우리 둘에서 시작된다. 음악 분위기부터 편곡 방향, 어떤 주제를 다룰 지 모든 것을 내 짝꿍 최자와 함께 했다. 둘의 호흡이 가장 중요한 게 다듀의 음악이었다면 이번 솔로 앨범은 정반대다. 내 안으로 깊이 파고들어 오로지 내 목소리에 집중해 만들었기 때문에 제작 과정 자체가 달랐다. 혼자만의 이야기와 상상을 더해 만들었다.

◆'레드 인 그레이'를 줄여서 '레딘그레이'다. 무슨 뜻인가.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색깔로 표현한 것이다. 회색은 선과 악이나 흑과 백으로 분리해 보는 것이 아니라 중간 영역, 회색으로 보이는 그 어느 시점이다. 그게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다. 붉은색은 앨범에 전반적으로 흐르는 인간의 욕망을 상징하는 색이다. 말하자면 회색 도시 속 인간의 다양한 감정과 욕망을 주제로 했다. 레드 인 그레이를 붙여 읽으니 어감이 좋아서 그렇게 지었다.

◆17곡이나 수록하게 된 이유가 있나.

첫 번째 트랙 '될 대로 되라고 해'는 작년에 발표한 싱글 솔로곡이다. 다이나믹 듀오가 아닌 개인적으로 음악적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했었다. 싱글로 하나씩 발표하자는 마음에 한 곡씩 만들기 시작했는데 노래가 많이 쌓이게 됐다. 싱글로 내기엔 너무 많아졌다. 적당한 시기를 찾다가 이렇게 발표하게 됐다.

◆타이틀 곡이 '장미꽃'과 '화장 지웠어' 두 곡이다.

'장미꽃'은 랩이 아닌 노래를 부른 곡으로 아내에 대한 세레나데다. 사실 세레나데는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느낌을 연상하지만 난 어둡고 무거운 느낌으로 만들었다. 아내를 생각하며 만든 노래인데 뮤직비디오가 좀 섬뜩하다. 연출한 김세명 감독님이 좀 변태인 것 같다(웃음). 사실 노래와 뮤비 모두 일년 반 전에 만들어 뒀다.

'화장 지웠어'는 '자니'와 비슷한 맥락의 곡을 만들어 볼까 고민하던 중 여자의 "오빠, 나 화장 지웠어"란 말 한 마디가 재밌어서 만들게 됐다. 사귀기 전 단계의 두 남녀가 어긋나는 과정을 그렸다. 남자가 술에 취해 '썸타던' 여자에게 문자를 보내지만 밀고 당기기에 지쳐서 이미 마음이 떠난 여자는 '화장 지웠으니 안 나갈 거야'라고 답하는 거다. 그 상황을 재미있게 음악으로 풀어봤다.

◆'화장 지웠어'가 썸이 끝난 노래다. 근데 가사 중 '널 소유했다 기고만장할 수 없잖아'라는 부분이 재미있다. 소유X정기고의 '썸'을 노린건가.

그 부분은 리듬파워의 멤버 행주가 썼다. 내가 가사 쓰는 스타일이 비슷한데 행주가 쓴 그 부분을 보고 재미있다고 그대로 쓰자고 했다. 물론 바로 정기고 형에게 전화해서 허락을 받았다. 소유씨 허락은 못 받았는데 걱정이다(웃음).

◆'레딘그레이'의 독특한 점은 음악만 있는 게 아니라 향수가 있고 동명의 전시회도 열린다는 것이다.

듣는 음악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음악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이미 뮤직비디오 등을 통해 이미 보는 음악도 익숙한 시대다. 그래서 마영범 교수님과 '레딘그레이'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전시회를 기획했다. 향수는 내 이름이 개코라서 나온 건 아니다(웃음). 음악을 향기로 표현해보고 싶었다. 레드는 붉은 장미향이고 그레이는 도회적인 느낌이 나는 향이다.

◆힙합이 '대세 음악'으로 떠올랐다. 소감이 어떤가.

음악을 시작할 때부터 늘 생각했다. 마음이 시키는 대로 재미있게 하자고. 하지만 좋아하는 음악을 하면서 대중과도 소통할 수 있는 접점을 찾으려 했다. 그렇게 우리 레이블 아메마컬처의 정체성이 형성됐다. 힙합신 자체가 각 레이블이 자신만의 색깔을 가지고 있다. 대중이 힙합이란 장르를 많이 선택해주고 있으니 각 레이블의 아티스트끼리 교류가 많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더 오랫동안 사랑받는 장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지민기자 langkim@metroseoul.co.kr·디자인/최송이

김종규 vs 이승현 '진짜 악바리는 나'

프로농구 LG-오리온스… 17일 신인 1순위 첫 맞대결

주말의 핫스팟

프로야구 정규리그가 끝나는 17일, 농구판에서 또 하나의 '빅매치'가 기다리고 있다. 전체 1순위로 지명을 받으며 프로 세계에 진출한 대형 신인 간 맞대결이 펼쳐진다.

이날 오후 7시 경기도 고양체육관에서 열리는 고양 오리온스와 창원 LG의 경기에는 이승현(22·197㎝)과 김종규(23·207㎝)가 시즌 첫 대결을 벌인다. 김종규는 지난 시즌 전체 1순위 신인으로 LG에 입단했고, 이승현은 올해 1순위로 오리온스의 지명을 받았다.

김종규는 이승현보다 키가 10㎝ 더 크고 팀에서 센터 포지션을 소화한다. 포워드 이승현은 외곽 플레이에 능하다는 점에서 둘간 매치업이 얼마나 이뤄질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 그러나 골밑 다툼이나 득점, 경기 흐름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1순위 출신들의 활약을 보는 게 관전 포인트다.

시즌 개막 후 3연승을 기록하며 단독 1위에 오른 오리온스는 이승현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 이승현은 세 경기에서 평균 8.3점에 3리바운드를 기록했다. 눈에 띄는 기록은 아니다. 하지만 추일승 오리온스 감독은 "수비면에서 공헌도가 높은 선수가 바로 이승현"이라며 "수비 능력을 보면 신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노련미까지 갖춘 선수"라고 칭찬했다.

이승현의 강점은 외곽포다. 골밑뿐 아니라 최근에는 3점슛도 심심치않게 쏘면서 득점을 올리고 있다. 지난 14일 서울 SK와의 경기에서는 3점슛 3개를 꽂아 넣었다. 이번 시즌에는 3점슛 7개를 던져 5개를 성공시켰다.

반면 LG는 개막전 1승 후 2연패를 당했다. 김종규는 세 경기에서 평균 11.3점을 넣고 리바운드 5개를 잡고 있다. 지난 시즌 평균 득점 10.7에 리바운드 5.9개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순조로운 출발이다.

특히 15일 부산 KT를 상대해 22점, 10리바운드로 제 기량을 톡톡히 발휘해 상승세를 이어갈지가 주목된다. 특히 이날 경기에서 오리온스에 패할 경우 시즌 초반 3연패를 당하게 된다는 점에서 김종규로서는 결코 물러설 수 없는 한 판이다.

이승현은 개막전 KBL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김종규에 대해 "대학때부터 신체 조건이 월등했고 잘했던 형"이라며 "제가 모자란 부분이 많지만 악바리 근성은 제가 더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김종규는 "승현이가 후배지만 저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올해 악바리 근성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겠다"고 말해 맞대결의 기대감을 높였다.

오리온스의 센터 장재석(23·203㎝) 또한 2012년 신인 드래프트 1순위였다. 중앙대 출신 장재석, 경희대를 나온 김종규, 고려대 이승현은 나란히 대학리그에서 라이벌 관계로 맹활약했다. 이들이 펼칠' 젊은 피' 농구가 코트를 한껏 달굴 것으로 기대된다.

/김학철기자 kimc0604@metroseoul.co.kr

'돌풍의 핵' 켄자스시티 WS 선착

이번 주말 상대팀 결정

주말의 스포츠월드

메이저리그 포스트시즌 8연승, 29년만의 월드시리즈 진출. MLB '돌풍의 핵' 캔자스시티 로열스가 미국 야구 꿈의 무대에 올라섰다.

캔자스시티는 16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캔자스시티의 커프먼스타디움에서 열린 볼티모어 오리올스와의 아메리칸리그 챔피언십시리즈(ALCS) 4차전에서 2-1로 승리해 시리즈 전적 4연승으로 월드시리즈에 선착했다.

캔자스시티가 월드시리즈에 진출한 것은 월드시리즈 우승을 차지한 1985년 이후 29년만이다. 이후 28년간 줄곧 하위권을 맴돌다가 올해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켄자스시티의 월드시리즈 상대는 이번 주말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내셔널리그 챔피언십시리즈 전적 3-1로 앞서 있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17일 경기에서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에 승리할 경우 월드시리즈에 진출한다. 세인트루이스가 승리할 경우 다음 경기는 19일에 열린다.

월드시리즈는 22일 켄자스시티의 홈인 커프먼스타디움에서 막을 올린다. /김학철기자

메트로 송년음악회

헨델 메시아 & 베토벤 합창교향곡

지휘 서희태
연주 밀레니엄심포니오케스트라

소프라노 박미자
메조 소프라노 이아경
바리톤 김동규
테너 신동원

합창 서울시합창단

티켓 P 20만원 VIP 15만원 R 10만원 S 7만원 A 4만원 예매 인터파크 티켓 1544-1555 공연문의 02-6292-9370

유통업계 '프로슈맘' 주목

마케팅·신제품 등에 의견 반영

불황이 계속되면서 기업의 '엄마 마케팅' 행보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단순히 엄마 고객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하는 차원을 넘어 직접 소통하며 제품의 질과 서비스를 개선하는 '프로슈맘' 마케팅이 주목받고 있다.

'프로슈맘'은 생산자(producer)와 소비자(consumer) 그리고 엄마(mom)의 합성어로, 소비는 물론 제품개발·유통과정에 직접 참여하며 '생산적으로 소비하는 엄마'를 뜻한다.

업계 관계자는 "경기 불황이 심화될수록 소비자는 구매에 따른 위험 요소를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고 '꼼꼼 소비' '신뢰 소비' '내구성 소비' 등이 증가하게 된다"며 "기업들은 가계 소비의 중심에 선 엄마들의 꼼꼼한 목소리를 듣고, 제품의 질 향상과 서비스 개선에 적용하고자 프로슈맘과 함께하는 마케팅 활동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유아용 카시트 전문기업 순성산업은 지난 8월부터 '맘스카우트' 1기 단원들과 함께 '엄마의 안전 약속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맘스카우트'는 유아 카시트 인식전환을 위해 시작한 '엄마의 안전 약속 캠페인'의 핵심 메시지를 알리는 순성산업의 온·오프라인 공식 홍보대사다. 순성산업의 주요 행사와 육아박람회에 참석하고 본사 자체 안전 연구소를 견학하는 등 안전 철학을 직접 체험하고 이를 전파할 예정이다.

LG생활건강의 유아용 기저귀 브랜드 마미포코는 공식 서포터즈 '포코맘클럽'을 운영중이다. 육아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제품 및 이벤트 아이디어 제안·육아 관련 콘텐츠 제작·보조 모니터 관리·신제품 리서치에 참여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 또한 공식 블로그·카카오스토리 운영 등을 수행하며 이벤트 기획에 참여한다.

한편 편의점도 주요 고객층이 아니었던 주부들과 소통에 나섰다.

GS25의 '주부 마케터 1기'는 10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주부 마케터는 판촉 프로모션 활동·고객응대 서비스 등에 대해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함께 개선점을 제안하는 제도로 5개월 간 정기적인 활동을 하게 된다. /김수정기자 ksj0215@

'축제의 계절' 바빠진 주류업계

행사 주최하거나 협업 통해 신제품 등 홍보

주류업계가 축제의 계절 가을을 맞아 관련 마케팅이 한창이다. 제품 출시에 맞춰 축제를 직접 주최하거나 대형 페스티벌과 협업해 신제품을 선보이는 등 브랜드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테이스팅의 자리를 파티나 축제와 연계해 자사 브랜드에 대한 고객 호감도를 높이고 있다.

전통술기업 배상면주가는 가을 정취와 함께 조상들의 풍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들국화술 축제를 개최해 고객들과 소통한다.

수제 맥주 업체 '웨일 브루잉 컴퍼니'는 16일과 17일 양일간 상암DMC 문화공원서 개최되는 '딜리셔스 뮤직 시티 치맥 카니발'에서 기념 맥주 '딜리셔스 웨일'을 첫 선을 보인다. 행사 당일에 맥주통과 양조 기기를 직접 공수해 수제 맥주의 신선한 향과 맛을 그대로 유지하며 관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맥주 맛 막걸리로 관심을 모았던 우리술의 '재즈막걸리'도 지난 3일 열린 자라섬재즈페스티벌을 통해 첫 출시했다. 우리술은 2010년 보리막걸리를 시작으로 흑미막걸리·잣 막걸리·미쓰리 유자 막걸리 등 재즈페스티벌에 맞춰 매년 한정판 제품을 출시해왔다.

지난 6월 잠실운동장에서 열린 '울트라뮤직페스티벌'을 공식 후원한 칼스버그. /칼스버그 제공

한층 더 진화된 맥주 업체들의 이색 마케팅도 눈길을 끈다. 지난 6월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울트라 뮤직 페스티벌'에도 공식 후원사로 참가했던 덴마크 맥주 칼스버그는 오는 18일과 19일 양일간 올림픽공원에서 진행되는 그랜드 민트 페스티벌의 공식 맥주로 선정돼 '칼스버그 카페 블러썸 하우스' 특별무대를 운영하며 대대적인 브랜드 홍보에 나선다.

/정영일기자 prms@metroseoul.co.kr

진화하는 조미료 '편리함' 추가

분말형태에서 티백·액상 타입 인기몰이

가루 형태 일색이었던 조미료 제품들이 최근 티백이나 액상 등 새로운 형태로 바뀌면서 편리함으로 주목 받고 있다.

먼저 티백 조미료는 손쉬운 사용으로 소비자들에게 인기몰이 중이다. 대상 청정원이 선보인 '맛선생 국물내기 티백'은 간편하게 티백을 우려내 밑국물을 만들 수 있는 제품이다. 4인 가족 국물요리를 기준으로 끓는 물에 티백 1개(10g)를 넣고 5분만 우리면 진하고 구수한 국물이 비로 완성된다. 구수한 멸치의 맛을 진하게 내 여러 국물요리에 두루 사용이 가능한 '멸치국물내기티백'과 새우와 붉은대게를 넣어 담백하고 시원한 국물맛을 내는 '해물국물내기티백' 2종으로 구성됐다.

최근 액상 조미료도 주목을 받고 있다. 샘표 '연두'는 콩을 주원료로 하는 액상 제품이다. 콩을 3단계 자연 발효해 만들었다. 맑고 투명한 액상타입이기 때문에 요리가 탁해지지 않고, 요리 고유의 맛과 색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료 수분손실을 줄여주는 장점이 있다. 청정원의

'맛선생 오색야채'은 생물기준으로 52%가 넘는 풍부한 야채를 사용해 만든 액상 조미료다.

신송식품에서도 최근 액상 요리도우미 '신송 요리가 맛있는 이유'를 내놨다. 콩메주 발효액에 국산 마늘·양파·생강·대파 등의 신선한 재료들로 두 번 발효시켜 더욱 풍부하고 깔끔한 감칠맛을 느낄 수 있다. /정영일기자

강강술래 '가을산행·캠핑 먹거리 할인전'

육포·돈가스·곰탕 30% ↓ 나들이 육류세트 40% ↓

본격적인 단풍시즌을 맞아 등산을 가거나 가볍게 근처 공원으로 나들이를 떠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는 야외활동 시 챙겨가기 편리하면서 영양까지 풍부한 가정간편식 할인행사를 벌인다.

먼저 전 매장과 온라인쇼핑몰(sullaimall.com), 전화주문(080-925-9292)을 통해선 보양식 100% 한우사골곰탕 대용량 선물세트(800㎖·5팩·15인분)를 3만8800원에 30% 할인 판매한다.

곰탕은 큰 일교차로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환절기 기력보충과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주며, 한우로만 우려내 맛이 진하다. 냄비에 붓고 끓이거나 봉지째 데워먹을 수 있어 조리도 간편하다

100% 국내산 돼지 통등심과 자연치즈를 사용한 통등심돈가스(3세트·2.16kg·3만1500원)와 모짜렐라돈가스(3세트·2.16kg·3만7800원), 영양간식 갈비맛 쇠고기육포(50g·6봉·2만5800원)도 각각 30% 할인가로 구매 가능하다.

강강양념구이(520g)와 한우불고기(500g)·한돈양념(500g)·돼지양념(500g)으로 구성된 나들이세트는 쇼핑몰과 전화주문을 통해 이달 말까지 40% 할인된 6만원에 구매 가능하다.

한편 이달 말까지 홈페이지(www.sullai.com)에 신청글을 올리면 추첨을 통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리는 '조선청화靑畵, 푸른빛에 물들다' 특별전 티켓과 어드름·아토피성 피부질환에 뛰어난 효능을 지닌 엠플러스케어 게르마늄 비누세트를 증정한다. /정영일기자

인터파크, '아이마켓' 오픈… 안착은 '미지수'

가격 비공개·경쟁력 단점

인터파크가 아이마켓을 오픈하고 B2B(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 전자상거래 사업에 힘을 싣는다. 이를 신 성장 동력으로 삼고, 기존 대기업 간 거래로 폐쇄형으로 운영하던 것을 중소기업과 개입사업자를 포함한 일반회원에게도 개방키로 했다.

인터파크 INT는 지난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터파크닷컴에 B2B 전문기업 아이마켓코리아의 '아이마켓' 사이트까지 탑재해 국내 최초 B2C·B2B 통합 플랫폼 서비스를 오픈한다"고 밝혔다.

인터파크의 B2C(기업과 소비자 간의 거래) 쇼핑몰 운영 노하우와 아이마켓 코리아의 상품 소싱 능력을 결합해 삼성과 같은 대기업이 사용하는 물품을 중소기업에게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70만종의 상품을 판매하고 견적서부터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현금수증 등 각종 증빙 서류를 쉽게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을 차별화로 내세웠다.

또 각종 실험도구와 장비, 삼성어린이집과 푸르니재단에 납품하고 있는 교육·보육 용품 등 특화된 카테고리 전문 상품 구매도 가능하다.

기존 G마켓·옥션·11번가 등도 기업들을 대상으로 전문몰을 운영하거나 온라인 쇼핑 채널 구축을 도와주는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기존 B2C오픈마켓에서 판매하던 상품을 해당 전문관에서 판매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파크의 이같은 원대한 계획 반면에 아이마켓은 가격 공개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단점을 안고 있다.

B2B는 특성상 일부 공급자들이 가격 협상을 이슈로 공개를 꺼린다. 이에 아이마켓의 경우 70종의 상품 중 20종만 가격을 공개하고 있다. 나머지 상품은 공급자와 개별적으로 접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인터파크는 지난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아이마켓 론칭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인터파크 제공

김 대표는 "앞으로 고객사와 공급사 간 긴밀한 연결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가격 공개 폭목도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할인도 자유롭지 못하다. 공급사와 협의를 거쳐 할인가로 책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에 B2B 거래를 해 왔던 G마켓과 옥션의 경우 다수의 판매자가 같은 상품을 판매해 할인 적용이 자유롭고, 더 낮은 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일부 상품은 아이마켓 보다 G마켓과 옥션의 상품이 더 저렴했다. 가격이 다양하기 때문에 낮은 가격 순으로 보면 얼마든지 싼 상품을 주문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5038원에 아이마켓에서 판매하고 있는 3M 중형테이프클리너 리필 상품은 G마켓 비즈온에서는 이보다 저렴한 4500원에 판매하고 있다.

또 더블에이 A4(2500매·1박스) 상품은 아이마켓(2만5124원)보다 옥션 비즈플러스(1만9620원)가 5504원 더 저렴했다.

옥션 관계자는 "가격은 우리가 관여할 수 없고, 판매자가 직접 하기 때문에 가격 조정이나 할인율 적용이 자유로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자상거래 총 거래액은 1204조1000억원으로 이 중 B2B 거래액은 90%인 1095조원이다.

이 가운데 오픈마켓은 일찌감치 이 시장에 뛰어들어 매출이 신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옥션은 지난해 중소기업·자영업자 전용 무료멤버십 서비스인 비즈플러스를 오픈했다. 사업자를 대상으로 할인을 실시해 올해 판매량이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했으며 사업자회원도 110% 가량 늘었다.

G마켓도 올해 사업자 회원 거래 규모가 전년 대비 약 20% 성장했다. 이 외에 11번가는 e커머스 플랫폼 구축과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파트너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김수정기자 ksj0215@metroseoul.co.kr

일교차 큰 날씨… 내복으로 훈훈하게

속옷업계, 신제품 출시·보상판매 '마케팅' 기지개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면서 속옷업계가 겨울 내의 마케팅에 돌입했다. 첨단 소재의 신제품을 선보이는가 하면 보상 판매로 훈훈한 겨울 나기를 돕는다.

BYC는 기존 제품에서 발열 기능을 대폭 강화한 2014년형 보디히트를 내놨다.

광발열 기능의 '솔라 터치' 원사를 사용해 보온성을 한층 업그레이드 한 것이 특징이다. 솔라 터치 원사는 대기 중의 적외선을 열에너지로 전환해 스스로 발열하는 소재로 몸의 수분을 흡수해 일시적으로 열을 내는 '흡습발열' 기능과는 달리 반영구적인 것이 장점이다.

이 밖에도 보디히트는 피부와 섬유 사이 공기층을 만들어 온기를 유지하는 마이크로 아크릴 섬유와 부드러운 감촉, 흡습 효과가 특징인 레이온 소재가 함유돼 추운 겨울철 따뜻하면서도 쾌적하게 착용할 수 있다.

좋은사람들은 아웃도어 의류에서 쓰이는 첨단 체열반사 소재인 '메가히트RX'를 적용한 '와우윔' 시리즈를 선보였다. 몸에 밀착되는 슬림 핏과 뛰어난 신축성으로 일상은 물론 아웃도어 활동 시에도 두루 활용할 수 있는 스포츠 라인까지 갖췄다.

제임스딘의 '프리미엄 체열반사 세트'는 얇은 소재에 뛰어난 보온력으로 일상생활은 물론 레포츠 활동 시 가볍게 착용할 수 있다. 특히 어깨·옆구리·허벅지 등에 절개 패턴을 적용해 자유로운 움직임을 돕는다고 업체 측은 설명했다.

라이프 스타일숍 퍼스트올로는 고객들에게 내복을 기부 받아 독거노인에 전달하는 '2014 겨울내의 보상판매 이벤트'를 실시한다.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국 퍼스트올로 매장에 브랜드에 관계 없이 상·하의 세트로 제품에 훼손이 없는 제품을 기부하면 된다. 이벤트 참여 고객에는 신제품 겨울내의 구매에 한해 자사 제품 기부 때 1만원, 타사 제품 기부 때는 5000원의 할인 혜택을 준다.

/박지원기자 pjw@

유아화장품·패션 "요우커 잡아라"

면세점 잇따라 진출… 중국인 관광객 공략

최근 유아용품업체들이 면세점에 잇따라 진출, 중국인 관광객 공략에 나섰다.

유아 화장품브랜드 궁중비책은 16일 올해 들어 5번째 면세점 매장으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에 입점했다고 밝혔다.

궁중비책은 지난 4월 롯데면세점 코엑스점을 시작으로 롯데면세점 본점·부산점, 신라면세점 제주점 등 중국인의 주요 쇼핑 코스에 입점하고 있다. 이달 안에 제주국제공항 내 한화갤러리아 면세점에 추가로 들어갈 예정이다.

면세점 매장마다 구매 고객 1000명에게 선착순으로 물티슈를 증정하는 등 마케팅도 강화했다.

궁중비책 관계자는 "매장을 찾는 고객 중 중국인 관광객 비중이 60%"라며 "하반기에도 꾸준히 면세점에 진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아 패션브랜드 메릴린은 이달 말 신라인터넷면세점에 공식 입점을 앞두고 있다.

메릴린은 국내 프리미엄 유아용품 브랜드 스엔코가 론칭한 유아전용 브랜드로 속싸개와 배넷저고리부터 보디슈트까지 총 20여 개 품목으로 구성됐다. 특히 대나무·옥수수 등 웰빙섬유를 사용해 가볍고 순할 뿐 아니라 통기성·땀 흡수율이 높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메릴린은 이번 인터넷 면세점 입점을 계기로 오프라인 면세점까지 유통망을 확장, 브랜드 인지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윤경식 스엔코 부사장은 "최근 국내 유아용품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늘어나면서 관련 업체의 면세점 진출이 활기를 띠고 있다"며 "앞으로 품질과 디자인 면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춘 제품을 다양하게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지원기자

이대여성암병원, 유방암 건강강좌

'핑크리본 캠페인' 일환…웃음 치료 강연도 열려

이화여대 의료원 이대여성암병원이 오는 24일 병원 2층 대회의실에서 '2014 핑크투어 유방암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핑크리본 캠페인'의 일환으로 열리는 강좌에서는 임우성 유방암·갑상선암센터 교수가 유방 건강 상식과 유방암 예방 및 치료 등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며 윤수정 웃음치료사의 강연도 이어진다.

유방암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병원은 생활용품 선물세트를 기념품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캠페인은 유방암으로부터 여성의 생명과 아름다움을 지키자는 취지로 마련된 행사로 한국유방암학회가 주관하고 있다. 문의: 02)2650−5995

/황재용기자 hsoul38@

특별함이 가득한 가을 해외여행!

캠퍼밴·핼러윈·유럽의 매력에 빠지다

해외여행이 일상화된 시대다. 학생과 직장인, 은퇴한 노부부까지 다양한 이유로 비행기에 오른다. 또 정기 휴가가 아니더라도 주말을 이용해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도깨비여행도 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해외여행은 정말 특별하다. 새로운 경험을 한다는 매력이 있고 삶의 활력소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가을 더 특별하게 다가오는 해외여행이 있다.

◆뉴질랜드 대자연의 선물

먼저 국내에서 즐기는 캠핑을 더 큰 감동으로 만날 수 있는 뉴질랜드 캠퍼밴여행이 눈길을 끈다. 침대와 화장실, 조리기구까지 모든 것이 갖춰진 캠퍼밴을 타고 목적지로 출발하면서부터 시작되는 여행은 안락하고 편안하게 대자연과 마주할 수 있으며 자연 속에서 편안하게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마우이, 브리츠 등 캠퍼밴을 전문으로 렌트하는 회사를 이용하면 편리하며 뉴질랜드 전역에는 캠퍼밴여행이 가능한 3000개 이상의 홀리데이 파크가 존재한다. 특히 뉴질랜드 남섬 북단 태즈먼에 있는 모투에카 톱 10 홀리데이 파크(Motueka TOP 10 Holiday Park)와 와카티푸 호수 인근의 레이크뷰 홀리데이 파크(Lake view Holiday park)가 유명하고 북섬 내륙에는 온천 시설을 갖춘 곳도 많다.

◆홍콩서 즐기는 '핼러윈 파티'

아시아 최대 규모의 해양테마공원 홍콩 오션파크에서는 10월 한 달간 '핼러윈 파티'가 펼쳐진다. 공포영화 스튜디오 콘셉트로 변신한 파크에서는 다양한 볼거리와 함께 핼러윈 데이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어트랙션과 쇼가 가득하다.

오후 5시 정각이 되면 오션파크 전체 음악과 조명이 바뀌며 유령들이 나타나 공포 분위기를 자아내며 유령스튜디오(Phantom studio)에 들어가면 공포에 휩싸인 재미있는 모습을 뽐내는 오디션에 참가할 수도 있다. 또 가족 관람객들과 어린이들에게 제격인 '도라에몽 핼러윈 파티'가 준비되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핼러윈 대축제 스케줄 패스'를 이용하면 손쉽게 일정을 확인할 수 있다.

◆2014 최고의 유럽 여행지

'유럽의 미니어처'로 불리는 슬로베니아는 알프스와 지중해, 그리고 중세 유럽도시의 매력을 한 번에 느낄 수 있는 유럽 최고의 여행지다. 특히 수도 류블랴나는 세계적인 여행안내서 출판사인 론니플래닛(Lonely planet)이 뽑은 '2014 최고 유럽 여행지'에서 2위를 차지했다.

류블랴나는 깨끗한 자연 경관뿐 아니라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곳으로 로마의 도시 에모나(Emona)의 중세 성곽부터 바로크 양식 건축물 등 지난 5000년의 역사가 잠들어 있다. 게다가 류블랴나 강을 이어주는 그림 같은 트리플교(Triple bridge)와 티볼리 공원(Tivoli park), 류블랴나 성 등은 슬로베니아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비발디파크 스키월드 시즌권 2차 판매

개장 전일까지…계층별 권종 추가

대명리조트 비발디파크 스키월드가 스키월드 시즌권 2차분을 스키장 오픈 전일까지 판매한다.

2차 판매는 1차 판매에 비해 다양한 계층별 특별 권종이 출시된 것이 특징이다. ▲전일권 ▲평일권 ▲야간권 ▲새벽권 등과 같이 이용시간별 권종 외에도 계층별 권종인 ▲실버권 ▲레이디권 ▲학생권 ▲패밀리권 등이 추가됐다. 특히 실버권은 50세 이상(196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을 대상으로 하는 전일 시즌권이다.

2차 판매는 홈페이지에서 이뤄지며 시즌권 구매 혜택으로 ▲상해보험 무료 가입 ▲주중 객실 우대권 ▲각종 할인권 ▲부대시설 할인 등이 주어진다. 또 시즌권 재구매자에게는 오션월드 입장권 1매가 추가로 제공된다. /황재용기자

가을의 절정 갈대로 물들다

17일부터 '순천만 갈대축제' 열려

가을의 절정을 느낄 수 있는 '순천만 갈대축제'가 17일부터 19일까지 전남 순천시 순천만과 동천 일원에서 펼쳐진다.

'갈대와 남도 음식의 만남'을 주제로 열리는 축제에서는 가을을 상징하는 풀인 갈대와 자연생태를 만나는 동시에 남도 음식의 대표 주자인 순천밥상을 마음껏 맛볼 수 있다.

축제 첫날인 17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갈대움집 1박2일 체험 ▲갈대배 만들기 ▲순천만 새벽 투어 ▲갈대길 걷기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열린다. 또 '순천의 맛을 느끼다'라는 콘셉트로 마련된 순천밥상 코너에서는 순천 시민이 추천한 순천 맛집, 음식 특화거리인 오리골목과 웃장 국밥골목 등이 소개된다.

특히 축제에서는 지난 4월 개통된 소형무인궤도차(PRT) 스카이큐브를 이용해 갈대숲을 여행할 수 있다. 순천만정원과 순천만을 잇는 스카이큐브를 타면 갈대와 알록달록한 코스모스가 만들어내는 가을의 아름다움을 여유 있게 만끽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순천 교류도시인 서울과 오산 등에서 온 여행객은 신분증을 제시하면 입장권이 50% 할인되며 스카이큐브를 운영하는 순천에코트랜스는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해 스카이큐브 온라인 사전 예매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황재용기자 hsoul38@

가족과 함께 63스퀘어에서~

가을 패키지 선봬

한화호텔앤드리조트(대표 홍원기) 63스퀘어가 새로운 패키지를 선보인다.

먼저 아이와 함께 해양생물을 관찰하고 체험할 수 있는 '63씨월드 3인 가족권'이 출시됐다. 나이 구분 없이 최대 33% 할인된 3만8000원이다.

또 '63 포토 패키지'도 마련된다. ▲씨월드 ▲스카이아트 ▲아이맥스 ▲왁스뮤지엄 등을 모두 즐길 수 있는 63 BIG4 패키지에 크로마키 사진 촬영권이 더해진 상품이다.

새 패키지는 다음 달 30일까지 이용 가능하다. /황재용기자

뮤지컬로 만나는 우리 전통음악!

다음 달 9일까지 '창작국악극 페스티벌'서 공연

우리 전통음악의 고유한 색깔과 현대적인 뮤지컬이 결합된 '창작국악극 페스티벌'이 다음 달 9일까지 서울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에서 열린다.

▲닭들의 꿈, 날다(바닥소리 판소리공장) ▲운현궁 로맨스2-채선이야기(국악뮤지컬집단 타루) ▲광대의 노래-동리, 오동은 봉황을 기다리고(전주세계소리축제)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이 다양하게 이어진다.

특히 광대의 노래는 배우 류승룡과 미스에이 수지가 출연을 확정지으며 영화 제작에 돌입해 큰 화제를 모았던 소설 '도리화가'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더욱이 광대의 노래와 운현궁 로맨스2에서는 무당의 딸로 태어나 조선 최초 여류명창으로 거듭나는 진채선이 등장해 공연에서 어떤 다른 모습을 풀어나갈지에 대한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 판소리 뮤지컬인 닭들의 꿈, 날다는 '꿈'을 주제로

이야기가 전개돼 가족 단위 관람객에게 안성맞춤이다.

모든 공연에는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 자막이 오르며 공연 시간은 평일 오후 8시, 토·일요일은 오후 3시다. /황재용기자

색다른 경험…무인도의 가을 걷기

신비의 바닷길 따라 트레킹…인천공항철도로 가깝고 편리하게

색다른 경험을 원하는 여행 인구가 늘어나면서 무인도 트레킹이 화제다. 특히 인천공항철도로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영종·용유도 주위에는 크고 작은 무인도가 많아 최근 트레킹 여행지로 인기몰이 중이다. 하루 두 차례 열리는 신비의 바닷길을 따라 무인도 탐사를 떠나보자.

◆아픈 역사의 숨결이 있는 '실미도'

먼저 북한의 청와대 습격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창설된 북파부대원이 훈련받았던 곳인 실미도는 무의도 옆에 있는 둘레 6㎞의 작은 섬이다. 무의도와는 썰물 때만 연결되기 때문에 실미도 트레킹은 반드시 물때를 확인해야 한다.

트레킹은 썰물 때 무의도 실미해변에서 시작된다. 바닷물에 잠긴 징금다리가 드러나면 실미도로 들어갈 수 있으며 갯벌과 모래가 뒤섞인 해변을 걷다 보면 북파부대원의 지옥훈련 장소였던 작은 해변에 이른다.

당시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는 흔적은 남아있지 않지만 부대원들이 고된 훈련 후 목을 축였던 우물과 거대한 기암은 방문객들이 찾는 단골장소가 됐다.

실미도에는 다음 달 30일까지 운행되는 코레일공항철도를 이용하면 편안하게 갈 수 있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다음 달 30일까지 운영되는 인천공항철도 서해바다열차를 타고 용유임시역에 하차해 잠진도 선착장까지 이동하면 되고 평일에는 인천공항역에서 버스를 타면 된다.

멀곶

조름섬

◆인천 최고 풍광의 조름섬

섬을 멀리서 바라볼 때 사람이 조는 모습을 닮았다고 해 '졸음섬'이라고도 불리는 조름섬은 용유임시역 인근 마시란해변 오른쪽 끝 지점에 있는 작은 섬이다.

조름섬 트레킹은 용유도 해안길 걷기의 백미로 꼽히는데 조름섬 바닷길이 열리는 썰물 때를 택해 길목에 있는 마시란해변을 거쳐 트레킹하는 것이 좋다. 희고 고운 모래해변이 끝 없이 펼쳐져 '명사십리'로 불리며 용유8경 중 제4경으로 꼽히는 마시란해변을 지나 조름섬 일대로 들어서면 용유도 인근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광이 찾아든다. 또 마주보는 모양의 바위, 기도하는 형상의 바위 등도 놓칠 수 없는 경치를 자랑한다.

조름섬 역시 서해바다열차를 타면 편하다. 용유임시역에서 내려 마시란해변까지는 도보로 10분 거리이며 평일에는 실미도와 마찬가지로 인천공항역에서 버스를 이용하면 된다.

◆바다 위를 거니는 장봉도

서해의 숨은 명소인 장봉도 선착장에 닿으면 인어상 뒤로 다리로 연결된 작은 섬이 그림처럼 서 있다. 인어상과 더불어 장봉도의 상징으로 통하는 멀곶이다. 이곳은 장봉도와 모도 사이에 있는 작은 무인도로 바다 가운데 있어 가까워도 멀리 있는 곳과 같다는 뜻으로 몽곶이라고도 불린다.

'잔교'라 불리는 구름다리를 건너 섬으로 들어가면 중앙에 작은 정자가 있고 해안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으며 섬 뒤로는 100m 가량의 모래해변이 있다. 특히 밀물로 바닷물이 가득 들어찰 때 다리를 통해 멀곶으로 들어가면 마치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가는 느낌이다.

아울러 썰물 때는 밀물이었을 때와는 사뭇 다른 풍경이 드러나며 해안에서는 실게와 조개 등도 잡을 수 있다. 특히 장봉도 옹암 부근에서 멀곶을 바라보는 전망과 함께 멀곶에 들어가 장봉도 주변을 바라보는 경험도 빠뜨릴 수 없다. 이곳은 인천공항철도 운서역에서 버스를 타면 손쉽게 찾을 수 있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울긋불긋' 단풍객 발길 잡는 명소는?

알뜰 가격 기획전부터 이색 테마파크 체험까지 다양

10월 중·하순 전국 명산들의 단풍이 절정을 이룰 것으로 전망되면서 때맞춰 단풍여행을 계획하는 이들이 많다. 이에 유통업계가 전국의 다양한 단풍 명소를 즐길 수 있는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쿠팡은 본격적인 단풍 시즌을 맞아 전국의 단풍 명소들을 알뜰한 가격에 선보이는 '단풍여행 기획전'을 실시한다.

홀로 조용히 사색의 시간을 갖거나 연인과 자연을 거닐며 낭만을 즐기고 싶다면 트레킹 여행 상품이 좋다.

'오대산 전나무 숲 가을 트레킹'은 일주문부터 금강교까지 1㎞ 남짓 이어지는 전나무 숲길을 만끽할 수 있다. '우리나라 3대 전나무 숲길' 중 하나로 숲이 뿜어내는 상쾌한 기운을 받으며 사색을 즐길 수 있다. 숲을 지나면 월정사와 방아다리약수터에서 오대산의 오색단풍을 감상할 수 있다.

아이와 떠나는 가족 여행객에게는 단풍구경과 역사 공부를 할 수 있는 상품이 인기다. 부안의 '채석강+내소사 단풍+갈대여행'은 5대 사찰 중 하나인 천년 고찰 내소사의 화려한 단풍을 즐길 수 있다. 또 보물 제291호·277호로 지정된 대웅보전과 고려동종 등 단풍으로 둘러 쌓인 아름다운 문화재를 만나볼 수 있다.

한편 물놀이를 즐기면서 단풍을 볼 수 있는 이색 체험도 눈길을 끈다.

가을 시즌 캐리비안 베이는 이색 단풍놀이를 즐기기에 제격이다. 11월 2일까지 수온을 27℃ 이상 따뜻하게 유지하기 때문에 야외 유스풀에서 물놀이를 즐기며 단풍을 감상할 수 있다.

/김수정기자 ksj0215@

가을 와인에 취해볼까?

르네상스 서울호텔, '무제한 주류&스낵 프로모션'

르네상스 서울 호텔이 스카이라운지 바 클럽 호라이즌에서 실속 있는 가격으로 와인과 다양한 스낵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무제한 주류&스낵 이브닝 프로모션 'Unlimited pleasure'를 선보인다.

샤도네이와 까베르네 쇼비뇽 등 엄선된 6종류의 고급 와인이 제공되며 와인과 잘 어울리는 올리브와 토마토 살사를 곁들인 또디아 칩·멕시코식 퀘사디아 등 8종류의 푸짐한안주를 맛볼 수 있다.

프로모션은 저녁 5시부터 9시까지 진행되며 가격은 5만5000원(세금·봉사료 포함)이다. 문의: 02)2222-8639

/황재용기자

마시 와인과 베네의 만남!

쉐라톤 인천 호텔 '와인 메이커스 디너'

쉐라톤 인천 호텔이 레스토랑 베네에서 이탈리아의 포도주 양조 지역으로 유명한 베네토 지역의 대표 와인 브랜드인 '마시(MASI)'의 와인과 정찬을 즐길 수 있는 '마시와 함께하는 와인 메이커스 디너'를 선보인다.

행사는 오는 23일 오후 6시30분부터 시작되며 베네의 스페셜 코스 요리와 함께 마시의 전문 매니저이자 소믈리에인 마르코의 와인에 대한 설명이 곁들여진다. 문의: 032)835-1716~7

/황재용기자

삼성 화이트 - 중국 로얄 클럽 맞대결

19일 롤드컵 결승전 유료 좌석 4만석 매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8강전 현장 모습.(왼쪽) 롤드컵우승 트로피. /라이엇 게임즈 제공

2014시즌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이 절정을 향해 가고 있다.

라이엇게임즈는 자사가 서비스하는 인기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의 세계 대회(일명 롤드컵) 19일 결승전 유료 티켓이 4만장 모두 매진됐다고 밝혔다. 라이엇게임즈는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롤드컵 결승전을 위해 당초 3만 좌석을 준비했지만 팬들의 요청에 힘입어 1만석을 추가로 준비했다. 추가 좌석은 2시간만에 매진됐다.

라이엇게임즈 관계자는 "롤드컵 결승전의 4만 관객 기록은 그 숫자로도 의미가 있으면서 유료 콘텐츠로서 성장한 e스포츠의 가치, e스포츠의 진정한 스포츠 성장 가능성을 입증하는 현상"이라며 "올해 롤드컵 결승전 관중은 지난해 개최지 미국 스테이스플스센터의 관중 1만1000명 기록을 충분히 뛰어넘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롤드컵 결승전 4만명 관중 기록은 8강전부터 차곡차곡 쌓여왔다. 부산 벡스코에서 지난 3~6일 진행된 8강에는 매일 2000명 이상의 관객이 몰렸다. 지난 11일부터 양일간 서울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열린 4강에는 첫날 8000명, 이튿날 7000명의 팬들이 찾아왔다. 열성 팬들은 한정 기념품을 사기 위해 새벽부터 기념품 가게 앞에 줄을 서는 진풍경을 연출하기도 했다.

이는 역대 e스포츠 최대 관중이었던 SKT 프로리그 2005 전기리그 결승전의 12만명을 뛰어넘는 성과다. 당시는 모두 무료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번 롤드컵 유료 관중과 단순 비교하기 힘들다.

◆ 롤드컵 결승전 한중 맞대결

한편 롤드컵 결승전은 19일 오후 4시 우리나라의 삼성 화이트와 중국의 로얄 클럽 맞대결로 펼쳐진다. 지난해 미국에서 열린 롤드컵에서는 우리나라 대표 SKT T1이 우승한 전력이 있어 2년 연속 우리나라가 우승을 차지할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다. 특히 중국 대표 로얄 클럽은 지난해에도 SKT T1과 결승에서 맞붙은 전례가 있어 긴장감이 더욱 크다.

결승전 오프닝 공연도 화제다. 올해 롤드컵 결승전은 세계적 인기 록 밴드 이매진 드래곤스의 내한 공연으로 시작된다. 이매진 드래곤스는 2014년 그래미 어워드 최우수 록 퍼포먼스상을 수상한 실력파 그룹으로 롤드컵 주제곡 '전사들(Warriors)'을 부를 예정이다.

다양한 부대 행사도 결승전의 흥을 돋운다. 19일 정오부터는 상암월드컵경기장 북측 광장에서 여러 가지 커뮤니티 이벤트와 코스튬 플레이 콘테스트가 열린다. 인기 팬아트 작가들의 사인회와 전시회, 스티커 타투 체험존, 스파이럴 캣츠와 팀 CSL과 함께 하는 포토존 이벤트도 개최된다.

롤드컵의 공식 후원사인 대한항공과 코카콜라, 엔비디아, 로지텍, 갤럭시아 커뮤니케이션즈가 함께 마련한 '스폰서 존'에서는 e스포츠 팬을 위한 푸짐한 경품을 내놨다.

결승전 현장을 찾는 모든 관객은 '챔피언십 스킨 쿠폰'을 받는다. 현장에서 지급되는 챔피언십 스킨 쿠폰에는 '챔피언십 리븐'과 '챔피언십 쓰레쉬' '챔피언십 쉬바나' 등이 포함됐다.

이승현 라이엇 게임즈 한국대표는 "세계 챔피언이 결정되는 현장을 직접 찾는 많은 분들께 최고의 경험을 선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윤희기자 unique@metroseoul.co.kr

'아이러브파스타' 할로윈 이벤트

인기 모바일 게임 '아이러브파스타'가 할로윈을 맞아 '달콤살벌 할로윈데이' 이벤트를 벌인다.

파티게임즈는 자사가 개발하고 서비스하는 인기 레스토랑 경영게임 '아이러브파스타'의 할로윈 이벤트를 30일까지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벤트 기간 이용자는 가게에 숨어있는 꼬마마녀와 드라큘라를 찾아 퇴치하거나 단골 손님이 쓴 호박탈을 깨뜨리면 할로윈캔디를 받는다. 수집한 할로윈캔디로 특별한 할로윈 테마와 교환할 수 있다. 이 밖에 S등급과 A등급의 한정판 할로윈 캐릭터 카드를 한정 구입할 수도 있다.

한편 아이러브파스타는 게임 최고 레벨을 기존 50레벨에서 60레벨까지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관련 업데이트와 이벤트 소식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장윤희기자

'배틀리그'로 e스포츠 점령한다

바른손이앤에이, 모바일 AOS 게임 도전

"구글플레이 매출 10위안에 들겠다."

바른손이앤에이가 이같은 야심을 드러냈다. 15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공개한 모바일 액션 RPG '배틀리그'를 e스포츠 시장에도 진출하겠다는 각오다.

'배틀리그'는 최대 6명이 실시간 멀티플레이 대전을 즐길 수 있는 횡스크롤 액션 RPG다. 세계 게임 아트 공모전인 '도미넨스워 5'의 2D 부문 대상 수상자 안상훈 아티스트의 참여로 개발 단계에서부터 화제를 모았다.

실제로 공개된 게임도 높은 품질의 2D 그래픽, 화려한 이펙트, 타격감으로 호평을 받았다.

특히 모바일 게임 최초의 스킨 시스템이 눈길을 끌었다. 단순히 카드게임와 같은 일러스트가 아니라 라이엇 게임즈의 '리그 오브 레전드'와같은 완벽한 스킨을 만날 수 있다.

'e스포츠'의 재미를 느끼는 것도 가능하다. AOS(적진점령) 재미를 가미해 6명의 유저가 3명씩 팀을 이뤄 3:3 팀 매치를 펼치는 것이 가능하다. 스토리 모드, 싱글 플레이모드도 마련돼 있다.

배틀리그는 10월말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를 통해 국내에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중국·북미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모바일메신저 '라인'을 통한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

이와더불어 e스포츠화를 추진하기 위한 관전모드, 맵툴 등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렸다.

박진홍 대표는 "'배틀리그'는 화려한 그래픽과 손맛을 느낄 수 있는 액션성, 간단한 조작성이 한데 어우러진 매력적인 게임"이라며 "구글플레이 매출 10위 안에 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국명기자 kmlee@

또 다시 터진 개인정보 유출

기자 수첩
장 윤 희
<경제산업부 기자>

한동안 조용했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다시 터졌다. 기업의 회원정보 안전 불감증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유명 동영상 공유 사이트 판도라TV의 870만7838건 전체 회원정보가 해커에 의해 두 차례 열람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중국 IP로 확인된 해커들은 판도라TV의 회원정보를 모두 엿본 뒤 이 가운데 11만4707명 회원 정보를 빼돌렸다.

해킹 사실보다 더 큰 문제는 어느 회원의 어떤 개인 정보가 유출됐는지 파악이 어렵다는 것이다. 해킹 수법이 교묘해져 11만4707명의 판도라TV 회원 정보가 해킹됐다는 사실만 알 수 있을 뿐, 해킹 피해를 입은 회원의 신상과 유출 내역은 현재로서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판도라TV 회원들은 자신의 개인정보 유출 여부조차 알 방법이 없다.

기자와의 통화에서 판도라TV 관계자는 "해킹 방법이 고도화돼 개인 정보가 유출된 회원 신상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만 회원가입 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고 비밀번호는 암호화해 이로 인한 추가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사측조차 개인정보 유출 피해 현황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대로 된 후속 조치가 이뤄질 지 의문이다. 판도라TV는 개인정보 문의와 피해 신고에 대해 고객센터 이메일로 연락하면 답변하겠다는 홈페이지 사과문만 띄운 상태다.

판도라TV는 2004년 10월 국내 서비스를 시작한 우리나라 최초의 동영상 사이트로 창사 10주년이 해킹 사건으로 퇴색했다. 정부, 금융, 통신, IT기업 등 해킹 무대가 넓어지고 있다. 연말 해킹 성수기를 대비해 기업들의 안전 불감증을 각성시킬 때다.

"北, 서해교전 항의 없었다"

7일 보낸 전통문에 군사당국 접촉 제안만 들어있어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발생한 남북 함정 교전과 관련해 지난 7일 우리측에 보낸 전통문에는 애초 알려진 바와 다르게 함정 사격전과 관련한 항의하는 내용은 없고 군사 당국 접촉을 제안하는 내용만이 있었던 것으로 16일 전해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통문은 서해에서 총격이 있었으니 협의해보자는 것이지 항의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또 북한이 당시 황병서 군총정치국장 명의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앞으로 보낸 이 전통문에 '긴급 단독 접촉을 갖자'라는 제안이 들어있었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황병서가 김 실장을 만자나는 거냐'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가 추후 수정 설명을 통해 "황병서와 김관진 실장 간의 만남은 아니라 당시 전통문의 발신과 수신 명의가 그렇다는 것"이라며 "당시 전통문에서는 실질적인 군사 당국자간 접촉의 북측 대표는 김영철(정찰총국장)로 왔다"고 말을 바꿨다.

앞서 15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군사 당국자 접촉에서 우리측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을 수석대표로 김기웅 통일부 통일정책실장과 문상균 국방부 군비통제차장(준장)이 대표로 참석했다. 북측에서는 김영철 국방위원회 서기실 책임참사 겸 정찰총국장을 단장으로 리선권 국방위 정책국장과 곽철희 국방위 정책부국장이 참석했다.

/조현정기자 jhj@metroseoul.co.kr

국감장 출석한 세월호 선원들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에 대한 국정 감사에 출석한 세월호 항해사, 진도 VTS센터장 등 증인들이 선 채로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이날 국감엔 현재 수감 중인 강원식 1등 항해사, 김영호 2등 항해사, 신정훈 견습 1등 항해사, 김형준 진도 VTS 센터장 등이 교도관들과 함께 출석했다. /연합뉴스

심판대 오른 '초이노믹스'

기재부 국감서 문제점 지적… 與 "우려" 野 "철회"

최경환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야심찬 확장적 경제 정책을 뜻하는 '초이노믹스'가 국정감사의 핫 이슈로 떠올랐다.

여야는 16일 기획재정위의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초이노믹스의 문제점을 일제히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즉각 철회를 요구했고,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조차 인위적 경기 부양의 위험성과 재정 건전성 악화 가능성에 우려를 표했다.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은 "내년 경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 수준이라면서 막대한 빚을 내고 정부와 가계, 기업을 총동원해 인위적인 경기 부양에 나서는 것은 무책임하고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정문헌 의원도 "정부가 무작정 경기 진작을 위한 확장적 재정 정책을 구사하면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에 재정을 맡기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박광온 의원은 "초이노믹스가 다음 정부에 빚을 떠넘기는 폭탄 돌리기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급증하는 가계 부채의 위험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성급하게 완화한 것 아니냐"며 "주택담보대출이 생계·사업 자금으로 사용되면 연체 확률이 높고 가계 빚만 늘어나는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조현정기자

김무성 "정기국회 후 개헌론 봇물"

이원집정부제 언급… 박 대통령 '블랙홀' 발언과 배치 파장일 듯

중국을 방문 중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정치권에서 부상하는 개헌 논의와 관련, "정기국회가 끝나면 봇물 터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16일 홍치아오 영빈관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봇물이 터지면 막을 길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개헌론에 대해 "경제를 삼키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힌 후 김 대표가 개헌에 대해 입장을 내놓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집권여당 대표가 대통령과 달리 개헌 논의의 불가피성을 거론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김 대표는 "개헌론이 시작되면 경제 활성화가 방해받는다는 지적은 맞는 지적"이라며 "다음 대선에 가까이 가면 (개헌은) 안되는 것"이라고 친박 주류의 '시기상조'론에 부정적 견해를 내놨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6일 상해 임시정부청사를 방문, 방명록을 기록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직선 대통령이 외교와 국방을 담당하고 국회에서 뽑힌 총리가 내치를 담당하는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를 언급, "우리 사회가 철저한 진영 논리에 빠져 아무 것도 되는 게 없다"며 "'All or Nothing'(전부 아니면 전무) 게임이기 때문에 권력 쟁취전이 발생하고, 권력을 분점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도 내각제에 대한 부침 때문에 정·부통령제를 선호했는데 이원집정부제도 검토해봐야 하지 않느냐 생각한다"며 "중립지대를 허용해 연정으로 가는 게 사회를 안정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현정기자

뉴스&뉴스

국방부, 여군 성범죄 피해 특별신고 받는다

● 국방부는 육군 17사단장의 부하 여군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여군 성범죄 피해에 대한 특별신고를 받기로 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16일 "이달 21일부터 30일까지 야전부대의 여성 정책장교와 여성 고충관리장교로 하여금 여성 성범죄 피해를 신고받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새 대변인에 김성수 임명

● 새정치민주연합은 16일 우윤근 원내대표 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김영근 전 대변인의 후임으로 김성수 전 원내대표 정무조정실장을 임명했다.

김 신임 대변인은 MBC뉴스데스크 앵커와 목포MBC 사장을 거쳐 지난 5월 박영선 전 원내대표에 의해 정무조정실장으로 발탁됐다.

인천AG 北선수단에 5억5000만원 지원

정부는 북한 선수단의 인천아시안게임 참가에 따른 소요 경비 중 북한이 미리 정산하고 간 금액 등을 제외한 총 5억5000여 만원 정도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제267차 남북 교류협력추진협의회 서면 심의를 거쳐 북한의 선수단 참가에 따른 소요 경비 9억3800만원을 남북 협력기금에서 무상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통일부가 16일 밝혔다. 북한은 선수촌 입촌료, 기자단 숙식비, 공항 이용료 등 총 19만1682달러(한화 2억300여 만원)를 지난 3일 우리측에 지불했다. /조현정기자

불법외환거래 꼼짝 마!

금감원-관세청, 대기업·병원·일본계 저축은행 등 모니터링 강화

금융감독원이 관세청과 함께 대기업 등을 대상으로 불법외환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보험사기가 잦은 병원과 정비업소, 렌터카 업체를 중심으로 기획조사를 하고 일본계 저축은행 8곳의 영업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 본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법과 원칙에 의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며 금융서비자 보호와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는데 감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최근 급증하는 불법외환거래에 대한 기획·테마검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해외부동산 취득, 페이퍼컴퍼니 설립 등을 통한 불법외환거래 적발건수는 지난 2012년 320건에서 지난해 1015건으로 급격히 늘면서 올 들어 1~9월에만 563건을 기록 중이다.

최 원장은 "대기업 등에 대한 관세청과의 공동검사를 확대하고 재산 은닉·반출 가능성이 큰 기업과 외국환은행의 업무취급실태 점검을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사기 피해규모가 크게 늘어나면서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보험사기 등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감독활동도 강화한다.

금융사기 피해신고액은 연 2700억원에 달하며 올해 1~8월 피해액 증가율은 44%다.

이 가운데 보험사기 적발규모가 연 5700억원에 이르며 미적발분을 포함한 총 보험사기 규모는 연 3조 4000억원으로 추정된다.

금감원은 대포통장 발급, 불법 대부광고, 채권추심 등의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의심계좌로 입금시 신속히 지급을 정지하는 '예방적 신속 지급정지제도'의 도입도 검토한다.

날로 불어나는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고정금리·분할 상환 확대 등 대출구조를 개선한다.

자살보험금 지급 논란과 관련해선 생명보험사들이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이행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다음달 서비스를 개시하는 카카오의 소액송금, 알리페이 결제도입 등 비금융회사의 지급결제시장 진출에 따른 소비자피해 가능성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현정기자 hjkim1@metroseoul.co.kr

특성화고 전문인력 채용박람회 16일 오후 서울 대방동 서울공업고등학교에서 열린 '2014 우수벤처기업 특성화고 전문인력 채용박람회'를 찾은 학생들이 취업공고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소방차 길 막는 '얌체차량' 스마트폰으로 신고하세요

정부가 긴급차량의 신속 출동과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소방관에게 교통 수신호 권한을 부여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섰다.

안전행정부·소방방재청·경찰청은 긴급차량이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하고 국민참여를 유도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긴급출동하는 소방차가 진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소방관에게 교통 수신호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현재 교통 수신호를 할 수 있는 권한은 경찰과 경찰업무보조원에게 있으므로, 경찰업무보조원에 소방관이 포함되도록 법령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또 긴급자동차가 접근했을 때 모든 차량이 도로 오른쪽으로 붙어 양보하도록 돼 있는 양보운전규정을, 편도 3차로 이상 도로에선 1차로 주행 때 왼쪽 가장자리로 피하게끔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긴급차량의 진로를 막는 '얌체' 차량을 시민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연말까지 구축된다. /윤다혜기자

"실제 상황이 아닙니다" 16일 오전 서울 원효대교 아래 한강에서 유람선 충돌 후 화재 상황을 가정한 '한강 대형 재난 민관 합동훈련'이 실시되고 있다. 다수의 구조정과 민간 보트들이 유람선을 탈출해 강으로 뛰어든 승객들을 구하기 위해 접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들 때린 아버지 '접근 금지' 첫 시행

아동학대에 강력한 대응을 골자로 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지난달 29일 시행된 가운데 경찰관이 학대받은 아동을 가해자인 아버지로부터 즉시 격리시키는 조치를 한 첫 사례가 나왔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부산 연제경찰서는 6일 오전 1시께 중학교 1학년생 아들(13)을 남편이 때리고 있다는 아내 김모(34)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남편 박모(34)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남편 박씨의 폭행이 가볍지 않다고 보고 특례법을 적용해 '긴급 임시조치' 1, 2, 3호를 내렸다.

'임시조치'는 아동 학대 행위자를 아동과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조치이며 1호는 주거지 격리, 2호는 주거지와 보호시설 및 학교 등지에서 100m 이내 접근 금지, 3호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다. /윤다혜기자

'울산 계모'에 아동학대 살인죄 적용

징역 18년 선고…"살인 미필적 고의 있다"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울산 계모' 박모(41)씨의 항소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됐다. 원심보다 3년 늘어난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부산고법은 16일 살인죄로 기소된 박씨의 항소심에서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당시 30분 정도 안정을 취해 이성을 찾았을 것으로 보였지만 얼굴에 핏기없이 창백한 상태로 변한 어린 피해자에게 더욱 가혹하게 2차 폭행까지 가한 점까지 더해 보면 폭행과정에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을 충분히 인식 또는 예견했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징역 10~18년6월인 양형 기준에서 최고 범위인 징역 18년으로 형을 정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집에서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의붓딸 이모(8)양의 머리와 가슴을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양은 갈비뼈 16개가 부러지고, 부러진 뼈가 폐를 찔러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 /윤다혜기자 ydh@

생보재단, 치매가족 위한 국제심포지엄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서울시와 16일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치매 가족을 품다'라는 주제로 '2014 치매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치매 환자 가족 지원에 초점을 맞춰 미국, 일본 등 국내외 본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해 최신 정보와 동향, 실제 도입이 가능한 선진 프로그램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서울시 박원순 시장을 비롯해 치매 환자 가족, 치매관련 전문가 및 기관 실무자 등 약 500명이 참석해 치매 환자 부양가족의 실태와 가족지지 프로그램 등을 소개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1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2014 치매 국제 심포지엄'에서 생보재단 유석쟁 전무가 격려사를 하고 있다. /생보재단 제공

유석쟁 생보재단 전무는 "치매는 환자 본인에게도 고통이지만, 부양가족에게도 큰 심리·경제적 부담을 준다"며 "앞으로도 생보재단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술값 난동' 전 부장판사 징역 10월 구형

술값 시비 끝에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이모(51·사법연수원 25기) 전 부장판사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심리로 16일 열린 이씨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부장판사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이씨는 지난 3월21일 오전 1시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주점에서 술값을 놓고 종업원과 시비를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최후 변론에서 "(사건 발생 뒤) 7개월 동안 절망하고 스스로에 대해 분노했다"며 "앞으로 영원히 이 일을 기억해야겠지만 (과오를) 씻어버릴 기회를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씨는 지난 8월 초 대법원에서 의원면직 처분됐다.

선고 공판은 3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윤다혜기자

metro Mexico

imbo, taxis VIP
ados con apps

metro France

PHOTOS - Les zombies sont d

좀비 400명 등장 '오싹'

최근 프랑스 툴루즈에서 좀비 축제가 열렸다. 이날 400여명의 축제 참가자들이 툴루즈 시내에 모였다. 이들은 각양각색의 좀비 분장을 하고 길거리를 행진했다. 거리에선 하드락 음악이 울려퍼졌고 좀비 분장을 한 사람들이 괴성을 지르며 뛰어다니는 등 오싹한 느낌이 물씬 났다. 피가 든 주사기를 눈에 꽂은 좀비, 팔이 없는 좀비 등 다양한 분장이 사람들을 놀래켰다.

metro HongKong

33%港人精神

15~24세 스트레스 최고

홍콩인의 스트레스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정신건강의 날(10월 10일)을 맞아 최근 한 연구팀이 홍콩인 1500명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지수를 조사한 결과, 올해 지수가 100점 만점에 55.93으로 지난해(59.72)보다 낮았다고 밝혔다.특히 가장 점수가 낮은 연령대는 15~24세(53점)로 확인됐다. 교육 수준에 따라서는 전문대 이상 학력자의 지수가 54로 낮게 나타났다.

우버 '무법 질주'… 일반택시 '정체'

절반 가격 내세우며 '밥그릇 전쟁'… 업계 "서둘러 관련 규정 마련하라"

전 세계 택시 업계를 휩쓴 '우버'(Uber) 논란이 멕시코에서도 등장했다.

우버는 지난 2009년 미국에서 시작한 콜택시 애플리케이션(앱)이다. 공식적으로 등록된 택시가 아니라 자가용 차량을 가진 개인도 이 앱을 이용해 일반 택시처럼 영업을 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우버 택시'가 생기자 멕시코 택시 기사들은 생존권을 위협받는다며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우버가 일반 택시 요금의 절반 가격을 내세우며 자신들의 '밥그릇'을 뺏고 있다는 불만이다. 앞서 지난 6월 유럽 택시 업계는 우버 서비스를 금지하라며 대규모 동맹 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현재 멕시코에는 우버 서비스 관련 규정이 없다. 안전과 요금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어서 미터기와 요금기가 없는 차가 태반이고 카드결제도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출퇴근 시간 등 승객이 몰리는 시간대에 엄청난 요금이 나와 이용자들의 불만을 사기도 한다.

멕시코 '개인택시 협회'의 엘리아자르 로메로 회장은 "우버 서비스가 우수하다는 점은 인정한다. 하지만 각종 규제에 막힌 공식 택시 업계가 우버와 경쟁하는 것은 넌센스"라고 말했다. 그는 "고객들이 우버 택시로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 반드시 관련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택시 협회는 곧 이 같은 의견을 담은 편지를 멕시코 대통령 궁과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정부 당국도 우버 서비스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루피노 레온 멕시코 교통부 장관은 "우버 택시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면서 "공식 택시 영업 허가도 없고 승객의 안전을 보장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련 법규를 마련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레온 장관은 다만 "우버 앱을 금지할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카를라 모라 기자·정리=조선미기자

metro Russia

Мечты сбываются

'백마탄 중세왕자' 공항서 프러포즈

최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풀코바 공항이 백마 탄 중세 기사의 등장으로 떠들썩해졌다. 한 남성이 여자친구에게 프러포즈를 하기 위해 중세 기사로 분장하고 나타났기 때문이다.

백마 탄 왕자로 변신한 '아르좀'은 항공사 승무원으로 일하는 여자친구 '마리야'가 탑승한 비행기가 도착하기를 기다렸다. 로맨틱한 청혼을 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춘 아르좀의 모습에 공항에 있던 여성들은 눈을 떼지 못했다.

마리야가 공항에 등장하자 아르좀은 말에서 내린 뒤 그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아르좀은 미리 준비한 반지를 내밀며 여자친구에게 청혼했다. 행복한 동화의 결말처럼 마리야는 청혼을 승락했고 둘은 입을 맞췄다. 아르좀은 시민의 환호와 축복 속에 마리야를 말에 태우고 공항을 빠져나갔다.

아르좀은 "내 여자친구가 어릴 때부터 꿈꿨던 프러포즈를 현실로 만들어주고 싶었다"며 "사랑하는 이를 위해 서라면 못할 것이 무엇이냐"고 너스레를 떨었다. 그는 이어 "마리야가 탄 비행기가 예정보다 늦게 도착했다며 "기다리는 동안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고 덧붙였다.

마리야는 "오늘만큼은 동화 속 공주가 부럽지 않다"며 "백마 탄 기사에게 청혼을 받고 싶었던 어린 시절의 꿈이 이뤄졌다. 정말 행복하다"고 말했다.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이들의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풀코바 공항에서 생긴 가장 이색적인 프러포즈다" "로맨틱한 청혼의 최고봉이다" "공항에 나타난 백마 탄 기사님, 내게도 와줘요" 등 다양한 댓글을 달며 커플을 축복했다.

/올가 솔가로바 기자·정리=조선미기자

이통3사, 소비자 혜택 강화 나선다

'단통법' 부정 여론 잠재우기 대책 마련 분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으로 통신시장 침체가 이어지자 이동통신 업계가 반전 분위기를 이끌기위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이다.

1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 단통법 시행 후 보조금 인하, 이통사·제조사에 대한 거센 부정여론이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 13~14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단통법이 당초 기대와 달리 가계통신비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특히 단통법 시행으로 이통사와 제조사만 배를 불리고 있다며 분리공시 도입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통3사는 부정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단통법 시행 후 고객 혜택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자사 T멤버십 고객을 대상으로 혜택을 강화한 '찾아가자 T멤버십' 프로모션을 17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시행한다. 프로모션 기간 중 T멤버십 고객들은 롯데월드, 미스터피자, VIPS, 메가박스, 뚜레쥬르, 키즈카페 키자니아 등 인기 제휴처에서 최대 70% 할인혜택을 받는다. 온라인 쇼핑몰 11번가, 소셜커머스 초콜릿 등에서도 매일 쇼킹딜·핫딜 등을 통해 최대 70%까지 추가 할인된 가격으로 쇼핑을 즐길 수 있다.

/KT제공

KT는 단통법 시행 이후 다양한 신규 서비스를 선보이며 본원적 서비스 중심의 경쟁을 선언했다. ▲가족 구성원 간 데이터와 멤버십 포인트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올레 패밀리박스' ▲결합할인을 강화한 '인터넷 뭉치면 올레' ▲통신사 최초로 항공사와 제휴한 '올레 만마일 카드' ▲멤버십을 강화한 '전무후무 올레멤버십' 등을 최근 출시했다.

LG유플러스는 단통법 시행에 따라 온라인샵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공식 온라인몰 'U+Shop'의 사용성을 대폭 강화한 'U+Shop 다이렉트'를 선보였다. GS리테일과 손잡고 신선식품 전문 쇼핑앱 'GS아이수퍼'에선 월 10만원 이상 구매하면 통신료에서 5000원을 할인해준다.

오영호 KT 홍보실장은 "단통법 초기에 시장 변화로 인해 오해와 불만이 있으나 도입취지는 고객 차별 없이 투명한 경쟁을 하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 고객의 합리적인 통신서비스 선택을 위해 우수한 품질, 고객 중심의 상담 응대 등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market index <16일>

코스피 1918.83 (−7.08)

코스닥 545.49 (−0.02)

금리(국고채 3년) 2.25 (−0.03)

환율(원·달러) 1062.00 (−2.70)

'첫 출하 석류-모과 드세요' 16일 서울 서초구 농협하나로클럽 양재점에서 모델들이 환절기 감기예방에 좋은 석류와 모과를 선보이고 있다. /농협유통 제공

국세청, 신용카드 가맹점 위장 5년간 4700곳 적발

지난 5년간 탈세를 목적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을 위장한 4700여곳이 세무당국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위장가맹점 적발 건수는 2009년 1146건, 2010년 734건, 2011년 932건, 2012년 1028건, 2013년 938건 등으로 집계됐다. 2010년 700건대로 낮아졌다가 다시 1000건 안팎으로 증가한 것이다.

국세청은 적발된 위장 가맹점이 사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직권폐업 조치를 하고 이런 결과를 여신금융협회에 통보해 카드사의 가맹점 계약 해지 업무에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국세청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적발된 위장가맹점 가운데 99.0%인 4731곳에 대해 직권폐업 조치를 했다.

위장가맹점 적발에는 국민의 제보가 상당한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위장가맹점 신고는 4595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이 가운데 지점 매출을 본점 명의로 발행한 경우, 본래 상호가 일반인에게 알려진 것과 다른 경우 등 착오로 신고된 경우가 적지 않아 실제로 위장가맹점으로 단속된 경우는 30.6%인 1406건이었다.

이와 함께 지난 5년간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당했다고 국세청에 신고된 건수는 9517건으로 나타났다.

/김민지기자 minji@

서울시, 뉴타운·재개발 정비구역 10곳 해제

서울시는 지난 1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성북구 장위동 일대 등 뉴타운지구 내 정비구역 7곳과 종로구 명륜4가 일대 등 재개발 정비구역 3곳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뉴타운지구 정비구역 해제 대상지는 성북구 장위동 231-233과 232-17, 중랑구 중화동 329-38, 강동구 천호동 391-24, 중랑구 상봉동 108과 101, 중랑구 망우동 564-10이다.

해제되는 뉴타운지구 7곳은 토지등소유자 30% 또는 50% 이상이 해제를 신청, 자치구청장이 정비구역 해제 요구안을 시에 제출한 지역이다.

서울시는 앞으로 건축물 개량과 신축 등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게 하고 주민이 동의하면 주거환경관리나 가로주택정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대상지는 종로구 명륜4가 127번지 일대, 서대문구 홍은동 11-320번지 일대, 성북구 종암동 9-31번지 일대다.

해제 대상 3곳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됐지만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요청으로 추진위가 해산된 곳과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한 지역이다.

/김두탁기자 kimdt@

코스피 1920선 붕괴 코스피가 전 거래일보다 7.08p(0.37%) 내린 1918.83로 장을 마감한 16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 외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구글 새 OS 롤리팝 탑재 넥서스6 넥서스9 공개

애플 아이폰·아이패드 치열한 경쟁 예고

구글이 애플의 최신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소비자층 공략을 위해 넥서스6와 넥서스9를 16일 선보였다. 여기에 새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인 롤리팝도 소개했다.

구글의 신제품 발표가 공교롭게도 애플의 최신 아이패드 공개 하루 전날이라는 점에서 향후 양사의 팽팽한 시장 경쟁도 예상되고 있다. 구글이 공개한 넥서스6는 모토로라가 만든 제품으로 알루미늄 본체에 6인치 쿼드HD 화면과 퀄컴스냅드래곤 805 프로세서, 1300만 화소 카메라를 탑재했다. 앞면에 스테레오 스피커를 탑재해 영화를 볼 때나 게임을 할 때 실감나는 음향 효과를 즐길 수 있다. 용량은 32·64GB 버전으로 판매한다. 여기에 15분만 충전하면 몇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터보 충전기도 함께 출시했다.

HTC가 만든 태블릿PC 넥서스9도 금속 소재 외관 디자인을 선보였다. 넥서스9은 8.9인치 화면을 탑재했으며 PC에서 일하는 것과 동일하게 쓸 수 있도록 키보드도 함께 출시했다. 키보드는 자석으로 부착되며 두 가지 각도로 접어 사용할 수 있어 무릎에 놓고 노트북처럼 사용할 수 있다.

구글은 넥서스9를 이달 말부터 예약 주문을 시작하고 다음 달부터 판매할 계획이다. 그러나 넥서스6의 출시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날 함께 공개된 안드로이드 OS 최신 버전 롤리팝은 지난 6월 미국에서 열린 구글 개발자대회에서 안드로이드L이라는 가칭으로 공개된 바 있다.

넥서스9와 넥서스6

롤리팝에서는 스마트폰과 태블릿PC, TV 등을 함께 연결해서 한 기기에서 다른 기기로 편리하게 오가며 작업할 수 있다. 또 중요한 회의를 하는 중에 특정 사용자의 메시지와 특정 알람만 표시되도록 알람을 세분화해 설정할 수 있다.

/양성운기자 ysw@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9(신문로2가)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조민호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IBK 퇴직연금 70%룰 유예

당국 실적 미흡따라 검토

금융당국이 최근 IBK연금보험에 대해 '퇴직연금 70%룰' 적용 유예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IBK연금의 '퇴직연금 70%룰'의 적용 기준을 현행 '취급액'에서 '건수'로 바꾸거나 2018년 또는 2021년까지 유예해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퇴직연금 70%룰은 중소기업의 해당 보험 취급액 비율이 전체의 70%를 넘어야 한다는 규정으로 IBK연금이 지난 2010년 퇴직연금사업자 인가를 받기 위해 제시한 룰이다.

하지만 중소기업 퇴직연금 가입률이 빠르게 증가하지 않는 상황에서 IBK연금의 퇴직연금 실적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생명보험협회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말까지 IBK연금 보험의 올해 퇴직연금 보유계약액은 1528억8800만원이다. 이 기간 신계약 액수는 531억5700만원이다. 이는 퇴직연금 취급 생보사 13개사 중 세번째로 적은 액수다.

이에 IBK연금은 금융당국의 퇴직연금 70%룰 유예 검토를 반기고 있다.

해당 규제가 기존 취급액수에서 '건수'로 바뀌면 상대적으로 액수가 큰 대기업의 영업도 가능하다.

IBK연금보험 관계자는 "퇴직연금 70%룰 적용 완화가 결정되면 영업환경이 한층 더 좋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형석기자

"카드사 저신용층에 고금리 장사"

연간 현금서비스 수수료 수입 1조 넘어

카드사가 운용중인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수수료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연간 현금서비스 수수료로 챙긴 수입도 1조원을 넘어섰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전업카드사 9곳의 신용등급별 평균 수수료율을 비교해본 결과,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저신용층의 경우 최하 19%에서 최고 24.9%의 고금리를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현금서비스의 경우, 신용등급이 우량등급(1~3등급)인 고객도 15%이상의 고금리를 부담해야 했다. 카드사별로도 최저 12.16%에서 최고 16.97%로 4.81%나 차이가 났다.

카드론 서비스의 경우 현금서비스보다 수수료율이 낮은 수준이지만, 6등급 이하 저신용층의 경우 최하 15.02%에서 최고 19.90%의 고금리를 부담하고 있었다.

1~3등급의 우량 신용등급을 가지고 있어도 12%이상의 높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수수료 역시 카드사별로 천차만별이었다.

현금서비스의 경우 삼성카드 최저등급(9~10등급) 평균 수수료율이 24.92%로 저신용자들에게 가장 높은 현금서비스 수수료를 부과했다.

이어 신한(24.7%)과 KB국민카드(23.89%)가 뒤를 따랐다.

카드론의 경우 현대(19.54%), 삼성(17.95%), 하나SK(17.94), 롯데(17.64) 순으로 6등급 저신용자에 대한 카드론 수수료율이 높았다.

유 의원의 국감자료에서 지난해 현금서비스 수수료로 챙긴 수입은 총 1조2893억원에 달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5897억원의 수수료 수입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카드사별로 보면 신한카드가 472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KB국민카드(2119억원) 삼성카드(1916억원) 순으로 많았다.

유 의원은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수준을 차등화하고, 고객들의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한 단계적인 대책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아란기자 alive0203@metroseoul.co.kr

메리츠, 증권대학 수강생 모집

메리츠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는 '제2기 증권대학'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신설하는 증권대학은 현직 펀드매니저, 베스트 애널리스트를 초청해 증권투자의 기초부터 다양한 투자이론과 투자기법 등을 알려준다.

실전투자대회를 통해 실력이 검증된 주식전문가들이 단순히 이론적인 강의가 아닌 증권투자의 실전매매기법을 강의한다.

2008년 한경스타워즈 우승자 이현규 영업이사, 2009년 한경스탁킹 우승자 문기웅 차장, 2014년 한경스타워즈 1분기 우승자 인영원 과장 등이 직접 강사로 참가해 생생한 노하우를 전달할 예정이다.

실제 시장에서 꾸준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전문 투자자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수강생 특전으로는 실전매매시 강남금융센터 운용팀 포트폴리오 활용, 수익률대회 우승자의 1:1 주식클리닉 서비스, 시황 및 추천종목 메일링&SMS 서비스 동행 기업탐방 및 기업투자설명회시 우선 배정권 등을 지원한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정원은 50명까지다.

수업은 이달 23일부터 오는 12월 4일까지 매주 목요일 2시간(저녁 7~9시)씩 7주간 진행될 예정이다.

참가신청하려면 메리츠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02-6286-6719~6721)로 접수하면 된다. /김현정기자

"어르신들 금융사기 조심하세요" 우리은행은 서울 성동노인종합복지관에서 60세 이상 노인 100여명에게 '찾아가는 어르신 금융소비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공공기관 사칭과 명의도용, 자녀납치 협박, 허위문자 등 최근 발생한 보이스피싱과 신종 금융사기 수법을 유형별로 소개하며 사례별 피해예방을 위한 대응법과 사고 발생 후 행동요령에 대해 설명했다. /우리은행 제공

AIA, 유방암 자가진단 이벤트

AIA생명 한국지점은 16일부터 사흘간 서울 종로구 인사동 아라아트센터에서 열리는 '2014년 유방암 의식향상 캠페인'에서 자가진단법 체험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부스에 설치된 '투게더 테스트'를 통해 가족병력·생활습관·나이·키·몸무게 등 정보를 입력하고 손쉽게 자신의 유방암 위험도를 측정할 수 있다. 또 이대여성암병원의 전문 의료진을 통해 유방암 조기발견과 예방이 가능한 자가진단에 대한 정보도 전달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참가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주기적으로 유방암 자가진단을 할 수 있도록 유방암 예방법 카드를 제작·배포하고 임직원들이 인사동거리에서 유방암 자가진단 홍보 리플릿을 행인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2014년 유방암 의식향상 캠페인'은 10월 '유방암 인식의 달'을 맞아 사단법인 대한암협회와 한국유방암학회 주최로 개최되는 행사로 AIA생명이 후원하고 있다. /김형석기자

은행, 기준금리 인하로 '마진 사수' 고심

한국은행이 또다시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은행들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로 은행업계 수익성이 한층 더 나빠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은행들은 수익성 악화를 극복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대체로 은행권에선 기준금리 인하를 전후해 예금·대출금리를 손본다. 시중은행들은 이번 한은의 결정에 따라 예금금리 인하폭을 대출금리보다 높게 가져가는 식으로 마진 축소를 방어하고 있다. 이미 기준금리 인하를 선반영해 금리를 조정한 곳도 있다.

당장 농협은행은 이달말 개최할 예정이던 내부 위원회 일정을 앞당겨 예·대금리를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선반영된 부분을 제외한 기준금리 하락분을 추가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 측도 "한은의 추가 금리 인하로 시장금리가 계속 하락하면 적정한 조달금리를 운영하기 위해 예·적금 금리가 추가로 하락할 수 있다"고 전했다.

현재 주요 은행들이 팔고 있는 정기예금 금리(1년 만기 기준)는 연 2.0~2.1% 수준이다. 향후 정기예금 연 1% 시대는 시간 문제인 것으로 예상된다.

대출금리 역시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

대출 기준금리가 되는 코픽스의 9월 수치는 신규취급액 기준 연 2.27%를 기록했다. 코픽스는 은행권의 대출 기준금리 역할을 하며, 국내 9개 은행의 정기 예·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양도성예금증서(CD) 등 수신금리를 잔액 비중에 따라 가중평균해 산출한다.

지난 2010년 도입한 코픽스는 지난해 2%대 후반으로 내려앉은 뒤 지속적인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 3월부터는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역대 최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9월 잔액 기준 코픽스도 전달보다 0.04%포인트 내린 2.68%로 역대 최저치를 나타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기존 고금리 예금의 만기가 도래한데다 상대적으로 저금리인 신규 예금이 반영되면서 이번달 코픽스가 추가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김민지기자 minji@

2015년 국가장학금을 받으려면, 꼭 필요합니다!

소득산정방식 변경 관련 가구원 정보제공 사전동의 안내

가구원 정보제공 사전동의란?

2015년부터는 소득산정방식이 더 투명하고 공정해집니다. 기존의 조사항목과 함께 금융재산, 부채 등을 포함한 정확한 소득재산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구원(대학생 본인과 부모 또는 배우자)의 정보 제공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청기간 2014년 9월 23일(화) ~ '15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이전까지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신청문의** www.kosaf.go.kr 1599-2000

가구원 정보제공 사전동의 신청절차

홈페이지 접속	본인 확인	동의대상 선택	동 의	결과 확인
온라인 사전동의 선택 재단홈페이지 온라인 사전동의 바로가기 참조	실명확인 및 사전동의 정책동의 가구원(부모 및 배우자)의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동의 대상자 (학자금신청자) 정보입력	개인정보제공 및 금융정보 활용 동의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동의자 본인(부모 및 배우자)이 학자금 지원 대상자(자녀, 배우자)에 대한 동의 결과 확인

투명하고 공정한 소득산정으로 국민의 신뢰를 만들어갑니다

징계번복·은행 수수료 담합의혹 추궁

금감원 국감…생보사 자살보험금 미지급 " 특감해 처벌하라"

국회 정무위원회의 16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KB사태와 은행들의 중도상환수수료 담합 의혹, 보험사기, 생명보험사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등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특히 KB사태와 관련해 최종구 부원장이 주재한 제재심의위원회의 경징계 결정을 뒤집은 최수현 원장의 중징계 결정을 둘러싼 배경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

첫 질의자로 나선 새정치연합 박병석 의원은 "KB사태는 낙하산인사와 금융당국의 일관성 없는 태도, 무책임한 이사회의 합작품"이라며 "금감원장과 제재심의 엇박자가 증폭된 데 대한 책임을 통감하느냐"고 물었다.

박 의원은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하지 않고는 제재심과 원장이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없다"며 의심의 눈길을 던지기도 했다.

같은 당의 신학용 의원도 "어떻게 제재심 위원장인 금감원 부원장과 원장이 엇박자를 내서 징계 수위가 달라질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최종구 금감원 부원장의 직접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은 "KB사태는 후진적인 한국 금융의 민낯을 보여줬다"며 "제재심에 공정위가 참석한다는 것 자체가 징계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재심과 다르게 금감원장이 KB 두 수장에 대해 중징계를 내린 결정이 떳떳하냐"고 따졌다.

최수현 원장은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제재가 매끄럽지 못한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다만 처음부터 법과 원칙에 따라 원장으로 소임을 다하려고 노력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최 원장은 KB사태로 야기된 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할 생각이 있냐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의 질문에 대해선 "책임을 통감하지만 물러날 뜻은 없다"고 못 박았다.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 취하 의향을 묻는 말에는 "취하하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새누리당 유의동 의원은 은행들의 중도상환수수료율 담합 의혹을 제기했다. 유 의원은 "모든 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이 어떻게 1.5%로 똑같을 수 있는가"라며 "원가기준 등이 다를 텐데 담합한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최 원장은 "공정위 소관이라서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에둘러 답변을 피했다.

같은 당 김정훈 의원은 보험사기로 인해 눈덩이처럼 커지는 피해에 대한 대응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적발되지 않은 보험사기 규모만 4조7200억원인데 이는 일반 국민들이 1인당 10만원 가까운 돈을 더 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보험사기가 이렇게 액수도 늘고 국민 피해도 끼치는데 적발건수는 1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보험사기특별조사국 설치 의사는 없는가"라며 제안하기도 했다.

최근 논란이 불거진 생보사의 자살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최 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의 질문에 대해 "특별감사를 준비 중이며 불법적인 부분이 드러나면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im1@metroseoul.co.kr

KB 차기 회장후보 4명 압축

KB금융지주 차기 회장 후보가 4명으로 압축됐다.

KB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16일 4차 회의를 열고 김기홍 전 국민은행 수석부행장, 윤종규 전 KB금융 부사장, 지동현 전 국민카드 부사장, 하영구 한국씨티은행장 등 4명을 면접 대상자로 결정했다.

회추위는 이날 회의에서 헤드헌트 업체 2곳으로부터 후보들에 관한 평판조회 보고를 받은 뒤 1차 후보 7명에 대한 평가를 벌였다.

김기홍 전 수석부행장은 지주사설립 기획단장을 맡아 그룹 경영체제의 기틀을 짠 당사자인데다 수석부행장을 지내 내부 사정에 밝다는 것이 강점이다.

윤종규 전 부사장은 2002년 삼일회계법인 부대표 시절 김정태 전 행장이 '삼고초려'로 영입한 인사다. 부행장으로서 재무·전략·영업 등 능력을 검증받았다.

지동현 전 부사장은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조흥은행 부행장, LG카드 부사장, KB금융 전략담당 부사장을 역임했다. 온화한 성품으로 KB 직원들의 신망이 두텁다.

하영구 씨티은행장은 차기 KB회장 도전을 위해 은행장직 사임 의사를 공식 표명하면서 유력 후보로 부상했다. 은행장으로서 14년간 쌓은 인맥과 경험, 글로벌 경영 감각이 강점이다.

회추위는 2차 후보군을 상대로 다음 주 90분간 개별 심층면접을 벌이고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지지로 최종 후보 1명을 결정한다.

차기 회장은 다음 달 21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정식 선임된다.

/김민지 기자 minji@

'CEO 런치소리통' 소통 경영 눈길 김병헌(가운데) LIG손해보험 대표이사 사장이 16일 장기보전팀 직원과 도시락을 나눠먹는 'CEO 런치소리통'을 진행했다. CEO 런치소리통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직원들과 식사를 하며 소통하는 행사로, 김 사장이 지난해 6월 취임 이후 강조한 '소통경영'을 위해 마련됐다. /LIG손해보험 제공

최대 21.6% 수익 추구 월 지급식 ELS 판매 유진투자증권은 오는 17일 오후 1시까지 최대 연 7.2% 수익을 추구하는 '제 191회 주가연계 파생결합증권(ELS)'을 판매한다고 16일 밝혔다. 매 월수익지급평가일에 각 기초자산의 종가가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65% 이상일 경우 월 0.6%(최대 연 7.2%)의 수익을 지급받아 만기까지 최대 21.6%의 수익이 가능하다. /유진투자증권 제공

하나금융·외환노조 '2·17합의서' 진실 공방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의 서명이 들어간 '2·17합의서'를 놓고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외환은행과 외환노조는 각각 서명하고 나눠 보관한 '2·17합의서'를 두고 정부의 포함여부에 이견을 보이고 있다.

합의서는 지난 2012년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을 사들인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의 독립 경영을 5년간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김승유 전 하나금융 회장과 윤용로 전 외환은행장, 김기철 전 외환은행 노조위원장이 합의 당사자로 나왔는데 이때 김 전 금융위원장도 정부 측 입회인 자격으로 합의서 조인식에 참석했다.

외환노조 측은 합의서에 김 전 위원장의 직위와 이름이 들어갔고, 김 전 위원장이 자필 서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당시 합의가 노사정 합의에 해당하며 조기통합 관련 협상은 정부가 중재해야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날 김승유 전 하나금융회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증인 신문 과정에서 하나금융이 보관한 합의서를 제시하자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이 합의서에는 김석동 전 위원장의 직위, 이름, 서명이 없다.

이에 대해 외환노조는 "당시 김 전 위원장 서명이 들어간 합의서와 그렇지 않은 합의서 두 가지 버전이 만들어졌다"며 "김 전 회장과 하나금융 측이 서명 없는 합의서만 제시하고 서명 있는 합의서는 숨기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전날 국감에서 2·17 합의서에 대해 "노사정이 아닌 노사 합의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한다"며 "당시 김 위원장은 단순 입회자로서 참여한 것"이라고 밝혔다.

/백아란기자 alive0203@

'SUV와 해치백이 만났다'… 푸조 뉴 308 SW

2열 시트 접으면 1775ℓ의 적재공간 생겨

푸조(PEUGEOT)의 한국 공식 수입원인 한불모터스(대표이사 송승철)가 SUV와 해치백의 장점을 고루 갖춘 뉴 308 SW를 16일 공식 출시했다.

뉴 308 SW는 올해 3월 제네바모터쇼에서 처음 선보인 차량.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약 10만대 이상 판매된 뉴 308의 에스테이트(왜건형) 모델이다. 뉴 308 SW는 실용적인 공간활용과 파워풀한 주행성능, 직관적인 주행을 돕는 인테리어 환경 등이 돋보인다.

뉴 308 SW는 경량 소재를 사용해 이전 모델보다 최대 140kg의 무게를 줄였다. 전장(4585mm)과 전폭(1865mm)은 이전 세대에 비해 각각 85mm, 50mm로 늘어나고 전고(1470mm)는 85mm 가량 줄였다. 휠베이스는 2730mm로 구형보다 120mm를 늘려 여유로운 실내 공간을 확보했다.

트렁크 용량은 해치백 모델보다 190ℓ가 넓은 660ℓ이며, 버튼으로 2열 시트를 접으면 1775ℓ까지 공간이 확보된다. 1열의 탑승자 공간에는 총 24ℓ의 수납공간이 제공된다. 냉장 글러브 박스(12ℓ)와 물병 수납이 가능한 1.5ℓ 크기의 전면 도어 트레이(3.7ℓ)도 갖췄다.

뉴 308 SW는 푸조의 새로운 디젤엔진인 2.0 블루HDi를 탑재해 최고출력 150마력, 최대토크 37.8kg·m의 파워를 발휘한다. 최대 토크가 2000rpm의 엔진 회전 영역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시가지 주행에서 빛을 발한다. 13.7km/ℓ의 연비(고속 14.5, 도심 13.1)와 144g/km의 CO_2배출량을 보인다.

뉴 308 SW는 다양한 편의장치를 갖췄다. 파크 어시스트(Park Assist)는 좁은 공간에서 주차와 탈출을 도와준다. 다이내믹 크루즈 컨트롤은 차량과의 거리와 속도를 계산해 적정 거리를 유지하는 시스템이다.

16일 국내에 처음 선보인 푸조 뉴 308 SW.(큰 사진) 뉴 308 SW는 넓은 트렁크 공간을 갖췄다.

국내 시장에는 2.0 블루HDi 악티브, 알뤼르, 펠린 등 3개 트림으로 출시되며, 가격은 각각 3490만원, 3690만원, 3850만원이다.

뉴 308 SW는 스위스, 크로아티아, 슬로바키아 등에서 '올해의 차(Car of the Year)'에 선정되며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한불모터스 송승철 대표는 "과거 307 SW, 308 SW가 국내 시장에서 누렸던 인기를 이번 푸조 뉴 308 SW에서도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임의택기자 ferrari5@metroseoul.co.kr

여성 위주 아파트, 남성 목소리 커진다

집안 내 서재·수납장은 물론, 운동시설 제공까지

남성들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된 아파트 설계가 잇따르고 있다. 그동안은 주부들이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다는 점을 감안한 여성 친화 주거 공간이 주로 공급돼 왔다. 하지만 맞벌이·은퇴 등의 증가로 남편들도 집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이들을 위한 공간이 느는 추세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재를 비롯해 남성용 화장대와 드레스룸 등 아파트 내 남자들을 위한 공간이 인기다. 특히 최근에는 알파룸을 서재로 활용하는 평면이 주목받고 있다.

서초 푸르지오 써밋에 마련된 아빠서재

대우건설은 서울 서초동 '서초 푸르지오 써밋' 97㎡A 주택형에 '아빠 서재'로 꾸밀 수 있는 평면을 소개했다. 발코니 확장 후 드레스룸과 서재 중 선택할 수 있는데, 모델하우스에는 서재로 활용한 유닛을 전시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 15일 최고 98.5대 1로 1순위 마감한 '동탄2시범단지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4.0'도 96㎡ 주택형에 서재를 만들었다. 개인 서재를 갖고 싶어 하는 가장들의 요구를 반영, 안방 뒤쪽으로 공간을 마련했다. 작지만 통창을 내 채광과 환풍이 가능하도록 했다.

구리 갈매지구에 분양 중인 '갈매 더샵 나인힐스'는 각종 스포츠용품과 아웃도어 의류를 보관할 수 있는 별도 수납장을 현관(타입에 따라 복도)에 배치했다. 일부 주택형은 넥타이, 벨트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전용 수납장도 제공한다.

남성들이 좋아하는 야외 활동을 단지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시설을 구성하는 곳들도 있다.

용인 중동의 '신동백 롯데캐슬 에코'는 야외골프장과 25m 4개 레인 실내수영장, 800㎡ 규모의 피트니스센터를 지었다. 특히 골프장에는 30~50m 규모의 6홀(미니형 파3), 18개 타석 연습장(6m), 롱퍼팅 그린(20m), 클럽하우스가 함께 들어선다.

최근 청약을 마감한 대전 동구 대성동의 '은어송 코오롱하늘채2차'는 국내 최초 야외순환 운동프로그램인 8서킷 트레이닝을 비롯해 워킹레인과 조깅레인으로 구성된 210m 트랙을 설치할 예정이다.

대전 문지지구 '효성해링턴 플레이스' 역시 간이 농구골대와 배드민턴 시설을 갖춘 다목적 실내체육관, 실내골프연습장을 제공한다. 단지 내 캠핑장, 텃밭 등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특화된 공간도 계획됐다.

/박선옥기자 pso9820@

지난해 기업 매출액 증가율 사상 최저

지난해 국내 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이 사상 최저치로 하락했다.

한국은행이 49만2288개 기업을 전수 조사해 16일 발표한 '2013년 기업경영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2.1%로, 한은이 관련 통계치를 내기 시작한 2002년 이래 가장 낮았다.

2010년까지만 해도 연간 15.3%였던 매출액 증가율은 2011년 12.2%, 2012년 5.1%로 3년 연속 하락했다.

자동차·전기전자(IT) 등 국내 경제를 떠받쳐온 제조업체의 매출액 증가율은 지난해 0.5%로 1961년 이래 역대 최저치였다. 제조업 매출액의 0%대 증가는 1998년 외환위기(0.7%) 당시를 제외하고는 없었던 일이다.

대기업 매출액 증가율은 지난해 0.3%로 전년(5.0%)과 비교해 큰 폭으로 하락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5.3%에서 5.6%로 소폭 상승했다.

업종별로 보면 금속제품(-8.4%), 조선(-3.1%), 석유·화학(-0.7%), 비금속광물(-0.6%), 운수(-0.6%)의 매출액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전기가스(2012년 16.7%→2013년 5.7%), 식음료·담배(9.4%→2.1%), 전기전자(11.7%→4.6%) 등도 7%포인트 이상 증가율이 축소됐다.

/김민지기자 minj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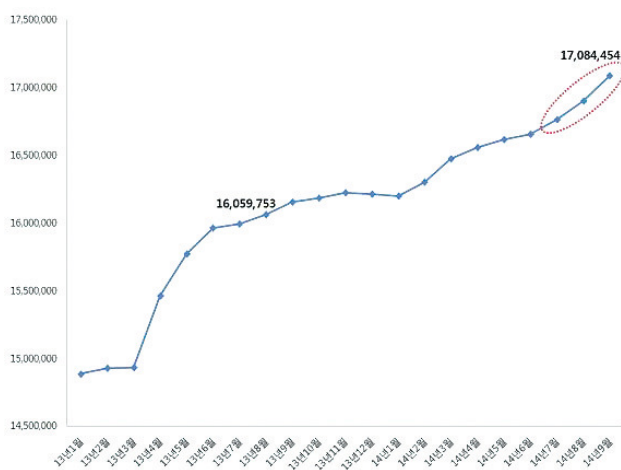
에코맥스 액상 결빙 방지제만 있으면 '걱정 끝'

겨울철 차량 결빙 걱정을 덜어주는 에코 맥스 친환경 액상 결빙 방지제(사진)가 나왔다.

이 제품은 영하 35도 이하에서 차 유리 및 와이퍼, 타이어, 문틀, 창틀 등에 뿌려놓으면 얼음이 얼지 않는 획기적인 제품이다. 따라서 노상 주차를 많이 하는 이들에게 더욱 유용하다.

특히 주차 후 장기간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 차가 얼어버려 황당했던 경험을 가진 이라면 환영할 만한 제품이다. 겨울철에 주로 쓰이는 제품이지만 공기와 수분 반응이 없어 장기간 보관해도 변질되지 않으며, 안전캡을 사용하므로 차 안에 보관해도 샐 염려가 없다.

환경표시 인증과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환경경영시스템 인증, 중소기업성능 인증 등도 획득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임의택기자

청약통장 가입 1700만명 돌파

전국 청약통장 가입자 변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9월말 현재 전국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1708만4454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1700만 명을 돌파했다. 우리나라 인구(5114만1463명, 통계청 2013년 기준) 3명 중 1명은 청약통장에 가입했다는 얘기다.

16일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최근 분양시장 호조세에 힘입어 2014년 3분기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모든 지역에서 증가했다.

특히 수도권은 2분기 증가분(1만4126명) 대비 10배(15만862명) 이상 증가해 최근 수도권 분양 시장 열기를 고스란히 반영했다.

이처럼 수도권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폭증한 것은 강남 재건축, 위례신도시, 동탄2신도시, 하남미사강변도시 등 수도권 유망 분양 물량의 인기가 지속되고 있고, 수도권 1순위 요건 완화(2년→1년), 소형 저가주택 기준 변경, 입주자 선정절차 단순화 등 정부가 청약제도를 개편하기로 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지역별 증가수는 경기가 7만8138명으로 1위를 기록했다. 다음으로 2위 서울 5만5255명, 3위 부산 4만6928명, 4위 대구 3만6067명, 5위 경남 3만4510명 등의 순위를 기록했다.

청약통장별로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1453만6378명으로 48만7236명 증가했고, 청약저축 88만4060명으로 3만3586명 감소, 청약예금 133만3020명으로 1만3766명 감소, 청약부금 33만996명으로 9331명 감소했다.

청약통장 가입자 증가세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주택청약종합저축 2년 이상 가입자의 금리를 종전 연 3.3%에서 3.0%로 인하했지만 시중 은행 저축성 수신금리(신규취급액 기준) 2.36% 보다 높고 장기 가입자에게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의 경우 소득공제 한도를 2015년 1월 1일 납입하는 분부터 현행 120만 원에서 240만 원까지 확대하기로 하는 등 아직까지 장점이 더 많기 때문이다. /김두탁기자 kimdt@

에어워셔 시장 경쟁 본격화

공기 질에 대한 관심 높아져 인기
'공기 청정' 기능 강화 소비자 공략

환절기에 접어들면서 공기 청정 기능과 가습 기능을 더한 '에어워셔' 제조사들이 신제품을 출시하고 본격적인 성수기 시장 공략에 나섰다.

에어워셔는 자연기화 방식으로 습도를 조절하는 일종의 가습기로 공기 청정 기능을 탑재해 공기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2000년대 후반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해 가전업체들이 선보이는 신제품들은 공기 청정 기능을 강조했다. 지난해 한 소비자단체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에어워셔 대부분이 공기 청정 성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면서 논란이 벌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업체들은 더 나아진 공기 청정 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대외적으로 그 성능을 인증 받아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LG전자가 16일 출시한 에어워셔 신제품 역시 공기 청정 기능을 강화했다. 초미세먼지보다 125배 작은 0.02㎛ 크기의 먼지까지 제거하는 '초미세먼지 필터'와 냄새·일산화탄소 등 유해가스를 제거하는 '탈취 필터'로 구성된 '집중 청정키트'를 제공해 소비자가 필요에 따라 제품의 공기 흡입구에 탈부착해 원하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제품은 한국공기 청정협회의 공기청정기 품질 인증 마크인 'CA(Clean Air)' 인증을 받았다.

위니아 에어워셔 하이브리드 /위니아만도 제공

국내 브랜드로는 처음 에어워셔를 출시한 위니아만도도 이날 7단계 공기 청정시스템을 장착해 공기 청정 기능을 강화한 2015년형 에어워셔 신제품을 출시했다. 신제품 중 '하이브리드'는 일상생활 속 큰 먼지를 잡아주는 극세망 먼지필터, 초미세먼지를 잡아주는 헤파필터, 알러지 유발 물질과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항 알러지·항 바이러스 코팅, 생활 악취를 제거하는 프레쉬 탈취 필터 등 다양한 기능을 통해 쾌적한 공기를 만든다. 이 제품 역시 CA 인증을 획득했다.

지난해 에어워셔 시장에 뛰어든 위닉스 역시 10월 중 공기 청정과 자가 관리 기능을 강화한 신제품 '에어워셔 숨'을 내놓을 예정이다. 지난해 에어워셔 제품에 대해 소비자들이 아쉬워한 부분이 공기청정 기능인만큼 이 부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삼성전자는 에어워셔가 아닌 본연의 기능에 집중한 가습기와 공기청정기로 가을·겨울 시장을 공략한다는 방침이다. 일부 업체들은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에서 만들기로 한 에어워셔 성능 평가 기준이 정해지고 난 후에 신제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정혜인기자 hijung0404@metroseoul.co.kr

패션과 아트카의 만남 1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크루즈 클럽 웨이브에서 뉴욕 출신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 '질스튜어트'가 현대자동차와 이종간 이색 패션쇼를 개최했다. /뉴시스

'르와지르 명동' 호텔 분양 나서

한류 열풍과 함께 대한민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고 있는 가운데 최고 관광지로 꼽히는 서울 명동에 '르와지르 명동' 호텔이 분양된다.

명동은 각종 브랜드매장, 백화점 등의 쇼핑시설이 밀집해 있고, 관광객이라면 필수적으로 방문하는 남산, 남대문시장, 고궁과 같은 명소와도 가깝다. 그러나 숙박시설 부족으로 명동에서 직접 숙박을 하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르와지르 명동은 랜드마크 쇼핑몰로 꼽히던 밀리오레를 리모델링한 호텔로, 명동을 찾는 관광객 수요를 흡수할 전망이다.

총 3만7799㎡ 규모로, 지상 3~17층에 619실이 들어선다. 조망과 크기에 따라 일반층, 로얄층, 프리미엄층으로 나눠 다양한 관광객들의 반영할 계획이다.

세계 1위 호텔체인인 윈덤의 아시아 에이전시 산하H&M에서 직접 운영하고, 10년간 안정적인 확정수익을 보장한다. 오픈 예정일이 2015년 1월로 투자 후 빠르게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분양 관계자는 "관광객들을 저렴한 숙박료로 특급호텔과 비슷한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비즈니스형 호텔을 선호한다"며 "명동은 호텔 가동률이 전국 최고 지역으로 특히 르와지르 명동은 세계적인 호텔 브랜드파워까지 누릴 수 있는 투자처"라고 설명했다.

일부 타입은 분양이 완료됐으며, 현장을 방문할 수 있다. 문의 02-779-6132 /박선옥기자 pso9820@

현대중 임원 31% 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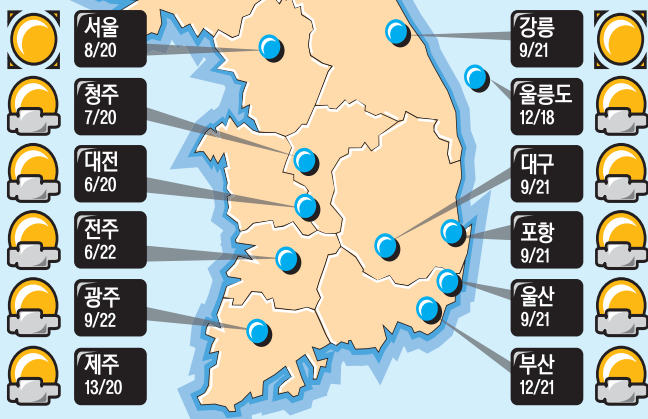
정몽준 장남 정기선 상무 승진… 생산직 임원 첫 탄생

현대중공업그룹은 16일 현대중공업·현대미포조선·현대삼호중공업 등 조선 3사의 임원 262명 중 31%인 81명을 감축하는 대대적인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 지난 12일 오전 본부장 회의에서 전 임원 사직서 제출과 조기 임원인사를 결정한 지 4일만이다.

현대중공업은 "어려움에 처해있는 회사에 변화를 주고, 체질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조기 인사를 단행했다"며 "조직을 슬림화해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여기에 맞는 인사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한 것이 이번 인사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현대삼호중공업 하경진 대표이사 부사장을 대표이사 사장으로, 현대오일뱅크 문종박 대표이사 부사장을 대표이사 사장으로 각각 승진 발령했다. 또 현대중공업 이성조 상무를 전무로 승진시키는 등 31명을 승진시켰다. 이어 박희규 부장 등 28명을 상무보로 신규 선임했다.

특히 대주주인 정몽준 전 의원의 장남인 정기선(사진) 씨가 상무로 승진하며 3세 경영에도 시동을 걸었다.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정기선 상무는 지난해 6월 현대중공업에 재입사, 경영기획과 선박영업부 부장을 겸임하면서 사업 전반에 걸쳐 경영수업을 받아왔다.

한편 현대중공업 조선사업본부 생산현장에서 드릴십(원유시추선) 품질검사를 담당하고 있는 노동열 '기정(技正)'이 상무보로 승진하며 그룹 역사상 최초로 생산직 출신 임원이 탄생하기도 했다. /김민준기자 mjkim@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1				7				
					1			6
	2	6				1	8	
	5	7	3		9			
	8						4	
			7		6	5	3	
	3	8				4	7	
5			9					
				2				3

6	2	4				8		1
9	8							
1			4	8			2	
5			6	2				
			1		7			
				5	4			6
	1			9	2			4
							9	3
3		8				6	1	2

스도쿠 정답

1	9	5	6	7	8	3	2	4
8	4	3	2	5	1	7	9	6
7	2	6	4	9	3	1	8	5
6	5	7	3	4	9	2	1	8
3	8	9	5	1	2	6	4	7
2	1	4	7	8	6	5	3	9
9	3	8	1	6	5	4	7	2
5	7	2	9	3	4	8	6	1
4	6	1	8	2	7	9	5	3

6	2	4	5	7	9	8	3	1
9	8	7	2	1	3	4	6	5
1	5	3	4	8	6	9	2	7
5	7	1	6	2	8	3	4	9
4	6	9	1	3	7	2	5	8
8	3	2	9	5	4	1	7	6
7	1	6	3	9	2	5	8	4
2	4	5	8	6	1	7	9	3
3	9	8	7	4	5	6	1	2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프리미어'
(피터 고든·프랭크 롱고 지음)

엉뚱한 곳에 세워진 표석

영화 <명량>의 기록이 놀랍다. 역대 최고의 오프닝 스코어(68만)에 최단기간 100만 돌파(2일), 최단기간 1000만 돌파(12일) 등 한국영화사에 없던 신기록을 잇따라 세워나가고 있다.

덩달아 이순신장군 관련 현장을 찾는 여행자들도 급증하고 있다. 명량해전의 현장인 전남 해남 울돌목이나 거북선을 만들던 여수의 선소(船所), 이순신을 선양하기 위한 사당인 충남 아산 현충사 등이 때 아닌 관람객 특수를 맞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디테일'을 들여다 보면 안타까운 면도 없지는 않다.

이순신 장군은 지난 1545년 한성부 건천동에서 태어났다. 지금의 서울시 중구 인현동 일대로, 충무로역과 을지로3가역 사이에 있는 명보아트홀 앞에 가면 서울시가 세운 '충무공 이순신 생가터' 표석을 만날 수 있다.

그런데 표석이 서있는 자리는 엄밀하게 말해 이순신 장군이 태어난 곳이 아니다. 이순신 장군이 태어난 곳은 지금의 인현동1가 31-2번지, 바뀐 새도로명 주소에 따르면 서울 중구 을지로 18길 19호로 표석이 있는 곳에서 200여 미터 떨어져 있다. 표석이 엉뚱한 곳에 놓여 있다는 얘기다.

서울시가 표석을 엉뚱한 대로변에 설치한 이유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하지만 그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함께 써놓지 않아 시민들로 하여금 역사적 장소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다분하다.

또 남산 중턱의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앞에 서있는 '조선총독부 청사 터' 표석과 '김익상 의사 의거터' 표석은 본래 함께 세우거나 내용을 합쳐야 의미가 통할 텐데 따로 나눠 설치함으로써 시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서울시가 표석을 설치한 이유는 국제적 이목이 집중된 1986년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한국문화의 우수성을 알림과 동시에 교육적인 자료로도 활용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그로부터 약 30년이 흐른 지금, 서울 시내에 산재해 있는 320여 개의 표석들은 표석의 형태와 재질, 문안의 형식 등이 모두 제각각인 데다 내용상의 오류마저 적지 않다.

/'다시, 서울을 걷다' 저자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운전기사, 가이드와 재혼 가능한지 감성보다 이성적 판단이 중요하죠

Q 달별사랑 남자 70년 3월 17일 양력 오후2시
여자 72년 3월 22일 양력 오후

저는 관광버스 운전기사입니다. 4년 전 교통사고로 아내를 잃고 오늘날까지 혼자 살아왔습니다. 다시는 결혼을 생각안하기로 했다가 우연히 한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도 저와 비슷한 처지로 혼자 살고 있는데 현재 관광가이드입니다. 성미가 여성스럽지 않게 활달합니다. 이분과 재혼을 해도 괜찮을는지요? 저는 딸이 하나있고 여자 분은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재혼했을 때 애들 때문에 어려움은 없을까요? 저희는 서로 무난한데 여러 가지가 신경 쓰이지만 재혼을 생각 안 할 수도 없으니 선생님의 고견을 듣고자합니다.

A 2018년까지는 배우자 자리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상대 여성은 알 수 없는 의혹이 많고 홍염살(紅艶殺)로 이성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서로 두 분이 원진살이 있고 그것으로 인한 두 사람의 사이가 멀어질 수도 있으며 형살(刑殺:형벌을 받듯이 흉함)이 작용하여 운에서 액운을 맞이합니다. 재혼의 성공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잘 알아보고 해야 하겠지요. 원진살이란 작고 사소한 것부터 충돌이 잦아지게 되며 살면서 공연히 원망하며 증오하게 되어 결국에는 헤어지게 됩니다. 서로 간에 교제할 때는 잘 모르는 사항이지만 살면서 뼈저리게 느끼기에 외롭다는 느낌 때문에 쉽게 재혼을 결정하셔서는 안 되는데 만나자마자 너무 진한 스킨십의 단계로까지 진행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원진살과 형살의 작용으로 인한 것인데 그러기에 재혼일수록 감성보다 이성적인 판단이 중요합니다. 상대를 위해서 아주 많은 것을 양보하려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배려하는 마음, 최선을 다하려는 마음이 중요하면서 서로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재혼을 결정하시게 된다면 일정기간의 시뮬레이션과정이 필요합니다. 예상치 않았던 자매가 생긴다는 것은 자녀들 입장에서 너무나 당황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적응하고 노력하고 개선해야할 점을 찾아보지도 않은 채 공동생활을 시작했을 때 갈등이 생길 소지가 많고 가족 중에서 이 상황을 거부하는 사람이 생겨날 확률이 높습니다. 가족 간의 불화는 결국 재혼 당사자들의 갈등과 불행으로 다시 연결됩니다. 자녀에게 다시 물어 보십시오.상대의 자녀를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재혼이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10월 17일 (음 9월 24일) 김희수 인생상담 : 02)577-0541

48년생 집안의 고민은 해결된다. **60년생** 배우자와 신경전 벌이면 백번 손해~. **72년생** 좋은 일에 호재가 없는 격이다. **84년생** 기회가 왔으니 백절불굴의 정신으로 도전하라.

49년생 생각이 같은 사람 만나 유쾌~. **61년생** 딴소리하는 자녀 때문에 끓는다. **73년생** 운전으로 야기되는 말썽 조심할 것. **85년생** 메마른 대지에 단비가 내린 격이다.

50년생 술자리가 길면 실수한다. **62년생** 횡재수가 있으니 로또라도 사라. **74년생** 공들인 일은 서서히 감이 온다. **86년생** 프러포즈는 받고도 심난한 날~.

51년생 생각도 못한 희소식에 야호~. **63년생** 모처럼 웃을 일이 생겨 즐겁다. **75년생** 모호한 태도로 오해사지 않도록~. **87년생** 상사의 칭찬에 의욕이 넘친다.

52년생 맨얼굴 보여준 벗이 좋다. **64년생** 영웅 심리에 조직일 총대 메지 말라. **76년생** 기약 없는 일은 포기하는 게 이롭다. **88년생** 자신감 생겼을 때 겸손 하라.

53년생 배우자 의견 따르면 편안~. **65년생** 궁하면 통하는 법이다. **77년생** 남의 사진보며 자신의 얼굴 찾는 실수는 말라. **89년생** 궂은일에 혼자서만 애쓰는 격이다.

42년생 북쪽에 가면 행운 따른다. **54년생** 서명운동 동참엔 신중할 것. **66년생** 주변의 충고 받아들이는 게 이롭다. **78년생** 처음한 일은 빈손이라도 만족하라.

43년생 나서지 말고 중용 지켜라. **55년생** 마음가짐에 따라 결과는 천차만별이다. **67년생** 시비 거는 사람은 멀리하라. **79년생** 대망을 꿈꾸는 사람은 천사를 만난 격이다.

44년생 과거 영화는 덧없는 허망이다. **56년생** 절박하지 않으면 두문불출할 것. **68년생** 참고 기다리면 위기가 기회 된다. **80년생** 명암이 엇갈리는 날이니 대비하라.

45년생 운기가 길해 만사 술술~. **57년생** 힘들어도 의리 지키면 나중에 좋다. **69년생** 욕심을 부려서 고민을 만들지 말라. **81년생** 고생 끝에 낙이 온 격이다.

46년생 감정이 치우치면 실수한다. **58년생** 배우자 의견에 귀 기울여라. **70년생** 주변 충고 무시하면 후회할 일 만든다. **82년생** 대접을 받으려면 남을 먼저 인정하라.

47년생 상황이 급해도 품위 지켜라. **59년생** 마음의 무거운 짐을 벗는 격이다. **71년생** 화가 나도 감정 컨트롤 잘 하라. **83년생** 땀이나 고통이 없는 성공 없다.

그래도
살만한
인생
tvN 10주년 특별기획
미생
未生
임시완 | 이성민 | 강소라 | 강하늘 | 김대명 | 변요한
기획 tvN 제작 N°3 NUMBERTHREE PICTURES
오늘 저녁 8시 10분 tvN 첫 방송